

[illegible]

# CONTENTS

## I. 건강상태

13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 의한 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 II.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47

9. 주류 소비량
10. 흡연인구 비율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III. 보건의료자원

61

12. 총 병원병상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14. 임상 의사
15. 임상간호사
16. CT 스캐너
17. MRI 장비
18. 의학계열 졸업자

## IV. 보건의료이용

83

19. 의사의 외래진료
20. 치과 의사의 외래진료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2. 제왕절개 건수
23. 신장이식 건수

## V. 보건의료비용

99

24. GDP대비 경상의료비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중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 VI.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115

29. 의약품 소비량
30. 의약품 총 판매액

## VII. 장기요양

123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요약표 : 2015년 기준\*

\* 본 자료는 각 국가 통계작성 사정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됨

분야	지표명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건강 상태	1. 기대수명(년)	82.1	80.6	83.9	74.6
	2.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명)	2.7	3.9	12.5	1.6
	3.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178.9 <sup>[13]</sup>	203.7	281.6	114.6 <sup>[14]</sup>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71.6 <sup>[13]</sup>	64.5	196.6 <sup>[14]</sup>	36.1 <sup>[13]</sup>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38.0 <sup>[13]</sup>	112.4	327.5 <sup>[14]</sup>	34.1 <sup>[14]</sup>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70.0 <sup>[13]</sup>	64.0	110.1 <sup>[13]</sup>	26.3 <sup>[14]</sup>
	7. 자살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28.7 <sup>[13]</sup>	12.1	28.7 <sup>[13]</sup>	2.6 <sup>[13]</sup>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32.5	68.2	88.9	32.5
보건의 비의료 결정 요인	9. 주류 소비량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알코올을 리터)	9.1	9.0	12.6 <sup>[14]</sup>	1.4
	10.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17.3	18.5	27.3 <sup>[14]</sup>	7.6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33.4	56.7	72.5 <sup>[16]</sup>	23.8
	12. 총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11.5	4.7	13.2	1.5
보건 의료 자원	13. 급성기외로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7.3 <sup>[14]</sup>	3.7	7.9	1.5
	14. 임상익사(인구 1,000명당)	2.2	3.3	5.1	2.2
	15. 임상간호사(인구 1,000명당)	5.9	9.5	18.0	2.8
	16. CT 스캐너(인구 100만 명당)	37.0	26.1	107.2 <sup>[14]</sup>	5.9 <sup>[14]</sup>
	17. MRI 장비(인구 100만 명당)	26.3	16.2	51.7 <sup>[14]</sup>	2.4
	18. 의학계열 졸업자(인구 10만 명당)	7.9	11.7	23.7	0.0
	19.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16.0	7.0	16.0	2.7
보건 의료 이용	20. 치과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2.0	1.2	3.2 <sup>[14]</sup>	0.0 <sup>[12]</sup>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일)	16.1	8.2	29.1	3.9
	22. 제왕절개 건수(출생아 1,000명당)	380.3 <sup>[14]</sup>	259.6	531.0	154.7
	23. 신장이식 건수(인구 10만 명당)	3.7	3.8	6.3	0.0
	24. GDP대비 경상의료비(%)	7.7	9.0	17.2	4.3
보건 의료 비용 (*16년 잠정치)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 재원 비중(%)	56.4	72.5	85.2	49.1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15)	36.8	20.3	41.6	6.8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중(%)('15)	21.4	16.2	29.2	6.8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US\$ PPP)	2,729	3,997	9,892	1,080
	29. 의약품 총 판매액(1인당 US\$ PPP)	532.2 <sup>[14]</sup>	444.8	835.0	151.3
의약품 시장	30. 의약품 총 판매액(1인당 US\$ PPP)	532.2 <sup>[14]</sup>	444.8	835.0	151.3
장기 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58.6	48.7	86.3	8.0

## 주요내용(요약)

본 책자는 OECD가 2017년 6월말 공표하고 이후 보완된 보건지표 (Health Statistics 2017) 중 주요 보건지표를 7월말 기준으로 추출하여, 업무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 관련 자료는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health>)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 기대수명은 82.1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6년)보다 1.5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수준(1.0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3.9년을 기록하였으며, 스위스와 스페인(83.0년)이 뒤를 이음
  - 이와 반대로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라트비아(74.6년)와 멕시코(75.0년) 순임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6.6명 높음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 2013년)와 그리스(4.7명, 2014년)이며, 헝가리(19.4명)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흡연율은 17.3%로 OECD 평균(18.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여성 흡연율(3.4%)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31.4%)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와 터키(27.3%, 2014년)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7.6%)는 흡연율이 가장 낮음
  - 2010년과 2015년 사이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는 흡연율의 변동이 없거나 줄어듦
-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5병상으로 OECD 평균(4.7병상)보다 2.4배 많음
  -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수가 줄어들었으며, 그 중 우리나라는 1.3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2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음

■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임상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1명을 기록함
- 우리나라는 폴란드(2.3명), 멕시코 및 일본(2.4명)과 함께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임상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OECD 평균 (9.5명)보다 3.6명 적음

- OECD 회원국 중 스위스(18.0명), 노르웨이(17.3명), 덴마크(16.7명, 2014년), 아이슬란드(15.5명)는 인구 1,000명당 15명 이상의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함
- 간호 인력이 적은 국가로는 멕시코(2.8명), 그리스(3.2명), 라트비아(4.7명), 이스라엘(4.9명)이 5명 미만을 기록함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0회로 OECD 평균(7.0회)보다 2.3배 많음

- 2010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3.5회로 5년간 2.5회 늘어난 반면, OECD 평균은 2010년 6.7회에서 2015년 7.0회로 증가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12.7회(2014년)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찰 횟수를 기록함

■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6.1일로 OECD 회원국 평균(8.2일)보다 2.0배 길어짐

- 한국 외에 평균병원재원일수가 10일 이상인 국가는 일본이 29.1일로 가장 길고 프랑스가 10.1일(2014년)임
- 터키(3.9일)와 멕시코(4.2일)는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 일수가 5일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짧은 재원일수를 기록함

■ 2016년(잠정치)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7.7%로 OECD 회원국 평균(9.0%)보다 낮음

- 2010년에 비해 2016년(잠정치)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1.2%p 상승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0.2%p)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17.2%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함

- 2016년(잠정치)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OECD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추이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잠정치)
한국	57.3	57.9	57.9	57.3	56.3	56.2	56.2	56.4	56.4
OECD 평균	72.1	73.1	72.8	72.9	72.5	72.6	72.5	72.5	72.5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2%), 독일(84.6%), 덴마크·일본(84.1%), 스웨덴(83.9%), 체코(83.4%), 룩셈부르크(83.0%), 아이슬란드(82.1%), 네덜란드(80.8%), 뉴질랜드(80.2%)로 80% 이상을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미국(49.1%)은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낮은 국가임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8.6개로 OECD 평균(48.7개)보다 다소 높음
  -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2010년 43.2개로 5년 사이 약 1.4배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3병상 늘어남
  -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86.3개를 나타남

제1장

#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 의한 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 I. 건강상태



## 1. 기대수명\*

\* 제시된 전체는 남·여 기대수명의 평균치임

■ 기대수명은 82.1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6년)보다 1.5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 수준(1.0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3.9년을 기록하였으며, 스위스와 스페인(83.0년)이 뒤를 이음

- 이와 반대로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라트비아(74.6년)와 멕시코(75.0년) 순임

■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 회원국에서 기대수명은 상당히 증가함

- 기대수명 증가의 배경 요인으로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 수준과 생활양식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이 있음

〈표 1〉 기대수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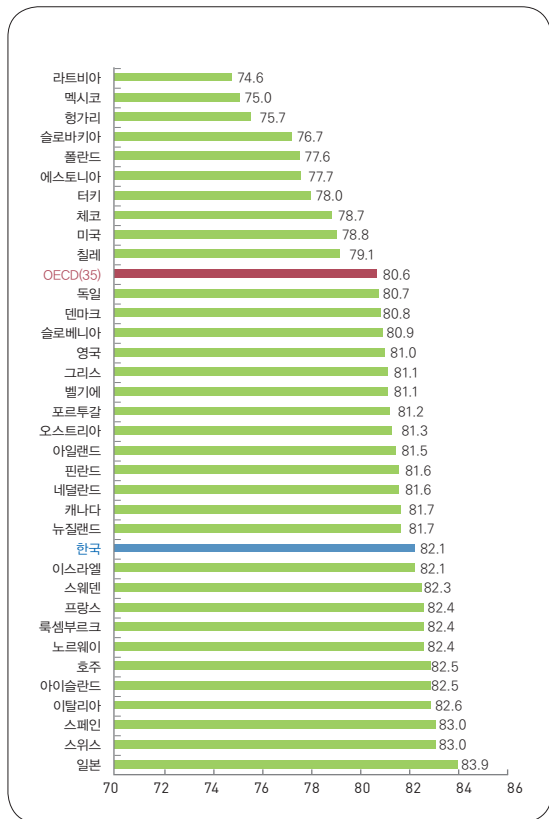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1.8	79.5	84.0	82.5	80.4	84.5
오스트리아	80.7	77.8	83.5	81.3	78.8	83.7
벨기에	80.3	77.5	83.0	81.1	78.7	83.4
캐나다	81.1	78.8	83.3	81.7	79.6	83.8
칠레	78.0	75.2	80.9	79.1	76.5	81.7
체코	77.7	74.5	80.9	78.7	75.7	81.6
덴마크	79.3	77.2	81.4	80.8	78.8	82.7
에스토니아	75.9	70.9	80.8	77.7	73.2	82.2
핀란드	80.2	76.9	83.5	81.6	78.7	84.4
프랑스	81.8	78.3	85.3	82.4	79.2	85.5
독일	80.5	78.0	83.0	80.7	78.3	83.1
그리스	80.7	78.0	83.3	81.1	78.5	83.7
헝가리	74.7	70.7	78.6	75.7	72.3	79.0
아이슬란드	82.0	79.8	84.1	82.5	81.2	83.8
아일랜드	80.8	78.5	83.1	81.5	79.6	83.4
이스라엘	81.7	79.7	83.6	82.1	80.1	84.1
이탈리아	82.1	79.5	84.7	82.6	80.3	84.9
일본	82.9	79.6	86.3	83.9	80.8	87.1
<b>한국</b>	<b>80.2</b>	<b>76.8</b>	<b>83.6</b>	<b>82.1</b>	<b>79.0</b>	<b>85.2</b>
라트비아	73.0	67.9	78.0	74.6	69.7	79.5
룩셈부르크	80.7	77.9	83.5	82.4	80.0	84.7
멕시코	74.1	71.1	77.0	75.0	72.3	77.7
네덜란드	81.0	78.9	83.0	81.6	79.9	83.2
뉴질랜드	80.8	78.9	82.7	81.7	79.9	83.4
노르웨이	81.2	79.0	83.3	82.4	80.5	84.2
폴란드	76.5	72.2	80.7	77.6	73.5	81.6
포르투갈	80.0	76.8	83.2	81.2	78.1	84.3
슬로바키아	75.6	71.8	79.3	76.7	73.1	80.2
슬로베니아	79.8	76.4	83.1	80.9	77.8	83.9
스페인	82.4	79.2	85.5	83.0	80.1	85.8
스웨덴	81.6	79.6	83.6	82.3	80.4	84.1
스위스	82.6	80.3	84.9	83.0	80.8	85.1
터키	74.3	71.8	76.8	78.0	75.3	80.7
영국	80.6	78.6	82.6	81.0	79.2	82.8
미국	78.6	76.2	81.0	78.8	76.3	81.2
<b>평균<sup>1)</sup>(35)</b>	<b>79.6</b>	<b>76.7</b>	<b>82.4</b>	<b>80.6</b>	<b>77.9</b>	<b>83.1</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1] 기대수명(전체),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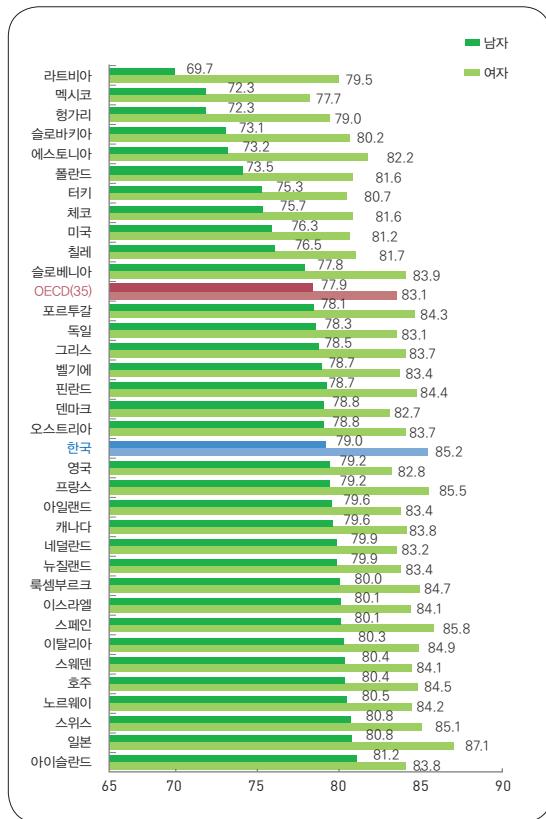
(단위: 년)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3)

[그림1-2] 성별 기대수명(남자, 여자), 2015년

(단위: 년)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3)

## 2. 영아사망률\*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의 수로,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임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3.9명)보다 1.2명 낮음

- 지난 5년간 0.5명(2010년: 3.2명 → 2015년: 2.7명) 줄어 들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도 4.4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슬로베니아(1.6명), 핀란드(1.7명)는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이 2.0명 미만으로 가장 낮음

- OECD 회원국 중 13개 국가에서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나타남

- 멕시코는 영아사망률이 12.5명을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2〉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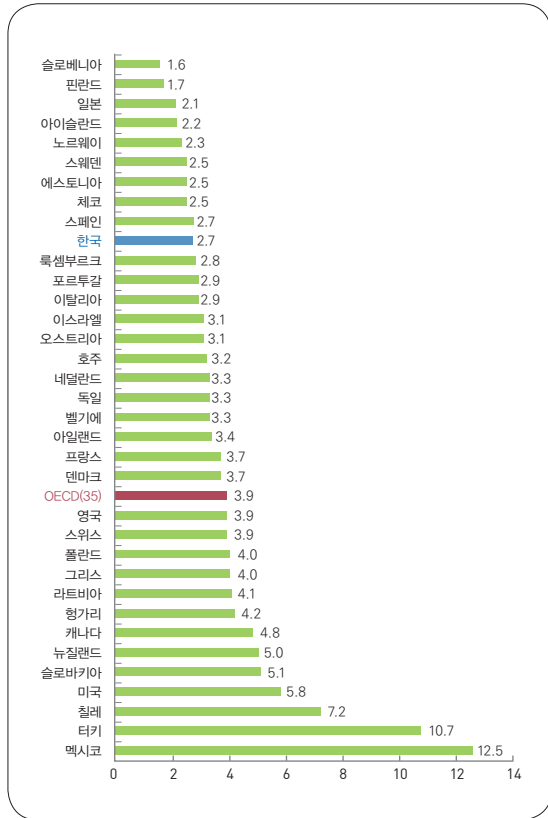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1,000명)

	2010	2015
호주	4.1	3.2
오스트리아	3.9	3.1
벨기에	3.6	3.3
캐나다	5.0	4.8 (2012)
칠레	7.4	7.2 (2014)
체코	2.7	2.5
덴마크	3.4	3.7
에스토니아	3.3	2.5
핀란드	2.3	1.7
프랑스	3.6	3.7
독일	3.4	3.3
그리스	3.8	4.0
헝가리	5.3	4.2
아이슬란드	2.2	2.2
아일랜드	3.6	3.4
이스라엘	3.7	3.1
이탈리아	3.0	2.9
일본	2.3	2.1 (2014)
<b>한국</b>	<b>3.2</b>	<b>2.7</b>
라트비아	5.6	4.1
룩셈부르크	3.4	2.8
멕시코	14.1	12.5
네덜란드	3.8	3.3
뉴질랜드	5.5	5.0 (2013)
노르웨이	2.8	2.3
폴란드	5.0	4.0
포르투갈	2.5	2.9
슬로바키아	5.7	5.1
슬로베니아	2.5	1.6
스페인	3.2	2.7
스웨덴	2.5	2.5
스위스	3.8	3.9
터키	12.0	10.7
영국	4.2	3.9
미국	6.1	5.8 (2014)
<b>평균<sup>1)</sup>(35)</b>	<b>4.4</b>	<b>3.9</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1] 영아사망률,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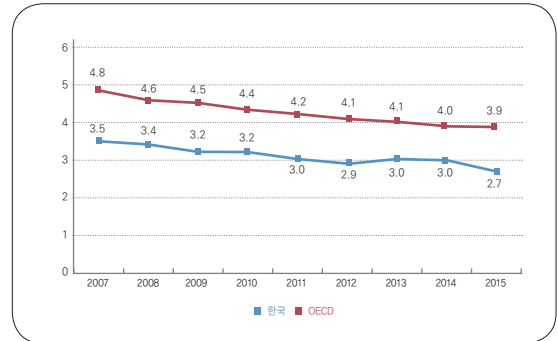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1,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2), 뉴질랜드(2013), 칠레-일본-미국(2014)

[그림2-2] 연도별 영아사망률, 2007~2015년

(단위: 명/출생아1,000명)



주) OECD: 35개국 기준, 각 해당년도 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 3. 암에 의한 사망률

-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8.9명 (2013년)으로 OECD 평균(203.7명)에 비해 낮은 편임
  - 2010년 193.7명에서 2013년 178.9명으로 14.8명 줄어 들었으나 2010과 2015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암 사망률은 7.8명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감소폭보다 적음
  - 남성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9.6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268.5명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의 암 사망률은 116.3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암 사망률 160.4명에 비해 낮음

\*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사망률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의 암 사망률은 여성의 암 사망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암 사망률의 남·녀 차이는 2.4배(2013년)로 터키 (2013년)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고, 라트비아 2.2배 순이며 멕시코(2013년)는 남·녀 차이가 1.2배로 가장 낮음

〈표3〉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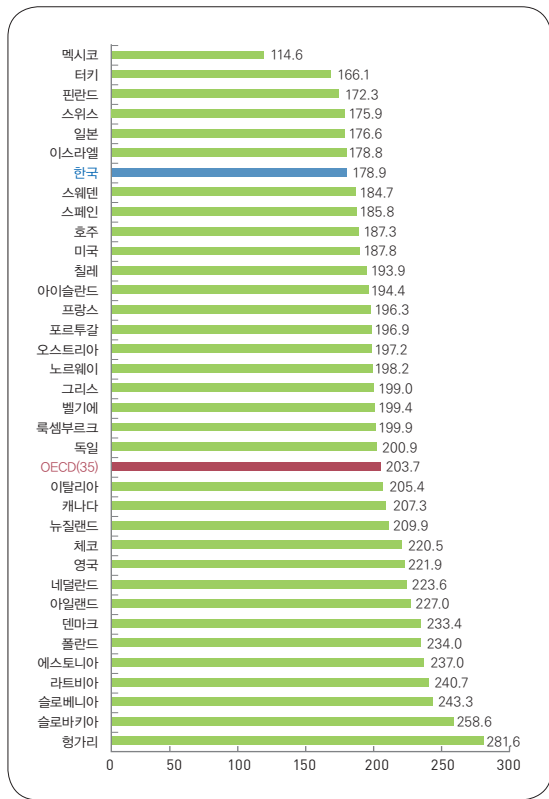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201.8	258.1	158.7	187.3	233.3	151.6 (2014)
오스트리아	204.0	266.2	163.4	197.2	250.1	161.2 (2014)
벨기에	217.1	291.6	166.0	199.4	259.8	156.1 (2014)
캐나다	211.3	254.2	180.9	207.3	248.9	177.3 (2012)
칠레	204.4	260.0	167.8	193.9	242.8	161.1 (2014)
체코	250.3	342.4	189.0	220.5	292.7	172.1
덴마크	252.5	301.5	219.6	233.4	278.5	201.8 (2014)
에스토니아	233.4	375.6	164.2	237.0	367.9	172.8 (2014)
핀란드	182.5	236.9	148.6	172.3	220.2	141.5 (2014)
프랑스	207.7	291.7	147.3	196.3	270.9	142.1 (2013)
독일	206.0	263.8	165.5	200.9	257.2	161.4 (2014)
그리스	196.5	261.2	143.9	199.0	273.8	139.4 (2014)
헝가리	292.2	411.1	216.1	281.6	384.7	215.4
아이슬란드	208.8	247.8	180.2	194.4	218.3	179.4
아일랜드	221.7	270.2	189.4	227.0	272.7	194.8 (2013)
이스라엘	189.2	219.3	167.4	178.8	207.4	157.6 (2014)
이탈리아	207.1	281.6	156.0	205.4	276.9	156.0 (2012)
일본	186.1	268.1	129.8	176.6	249.1	125.6 (2014)
<b>한국</b>	<b>193.7</b>	<b>303.8</b>	<b>125.1</b>	<b>178.9</b>	<b>279.6</b>	<b>116.3 (2013)</b>
라트비아	248.0	385.4	182.4	240.7	378.4	171.7 (2014)
룩셈부르크	209.9	293.4	157.7	199.9	273.1	149.0 (2014)
멕시코	121.0	138.1	110.0	114.6	128.9	105.2 (2014)
네덜란드	240.1	309.5	194.4	223.6	277.5	186.6
뉴질랜드	213.9	253.1	184.7	209.9	249.8	179.9 (2012)
노르웨이	212.7	267.0	177.3	198.2	243.6	167.9 (2014)
폴란드	244.2	343.2	182.5	234.0	321.7	179.0 (2014)
포르투갈	198.4	285.1	137.1	196.9	278.3	137.6 (2014)
슬로바키아	247.2	360.3	175.6	258.6	367.0	191.5 (2014)
슬로베니아	257.3	361.8	192.6	243.3	336.9	183.9
스페인	197.5	287.1	131.2	185.8	265.8	125.9 (2014)
스웨덴	189.1	227.4	164.2	184.7	220.3	160.9
스위스	181.6	240.3	142.6	175.9	228.3	140.0 (2013)
터키	152.8	225.7	96.6	166.1	246.4	104.4 (2013)
영국	226.3	275.2	192.1	221.9	268.5	188.7 (2013)
미국	197.9	243.1	166.5	187.8	228.1	159.2 (2014)
<b>평균<sup>1)</sup>(35)</b>	<b>211.5</b>	<b>282.9</b>	<b>164.8</b>	<b>203.7</b>	<b>268.5</b>	<b>160.4</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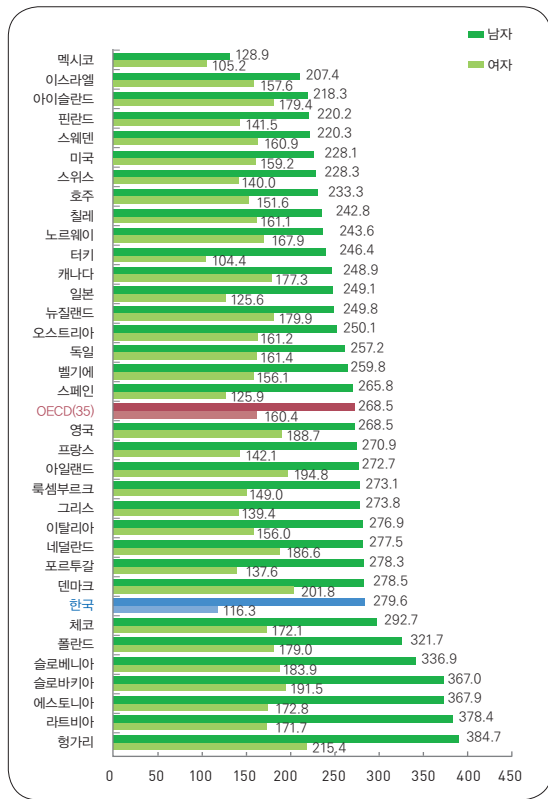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그림3-2]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71.6명(2013년)으로 OECD 평균(64.5명)에 비해 높음

- 2010년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86.0명으로 지난 3년간 16.7% 정도 감소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ECD 회원국의 평균 뇌혈관질환 사망률도 15.6% 감소함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냄

- 프랑스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6.1명(2013년)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라트비아(196.6명, 2014년)의 18.4% 수준에 불과함
- 라트비아(196.6명, 2014년), 헝가리(114.8명), 슬로바키아(110.8명, 2014년), 터키(100.8명, 2013년)등의 국가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100명 이상으로 높은 반면, 프랑스(36.1명, 2013년), 캐나다(36.4명, 2012년), 스위스(37.2명, 2013년), 이스라엘(39.2명, 2014년)은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40명 미만으로 낮음

〈표4〉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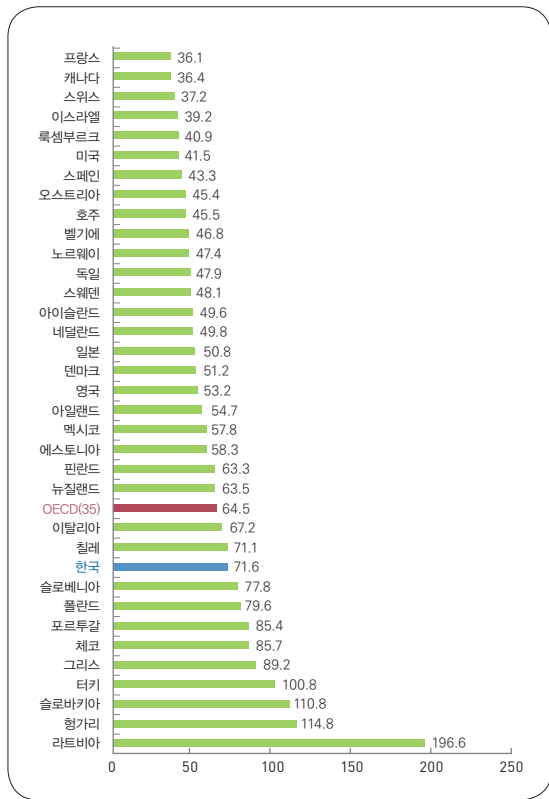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53.1	50.8	53.5	45.5	44.1	45.7 (2014)
오스트리아	51.4	53.2	49.4	45.4	47.5	43.0 (2014)
벨기에	54.4	58.9	50.8	46.8	50.7	43.4 (2014)
캐나다	40.4	41.9	38.5	36.4	38.3	34.4 (2012)
칠레	85.8	102.8	73.6	71.1	84.5	60.9 (2014)
체코	117.0	124.2	110.1	85.7	92.6	79.3
덴마크	64.4	71.8	58.4	51.2	55.7	47.4 (2014)
에스토니아	92.5	108.1	82.6	58.3	72.3	50.4 (2014)
핀란드	67.4	74.4	61.2	63.3	68.3	58.3 (2014)
프랑스	39.3	45.1	34.9	36.1	40.8	32.3 (2013)
독일	57.2	59.0	54.1	47.9	50.3	45.0 (2014)
그리스	111.6	103.3	117.7	89.2	88.5	88.1 (2014)
헝가리	131.8	158.0	113.6	114.8	135.4	100.4
아이슬란드	60.2	63.1	57.9	49.6	50.2	48.1
아일랜드	60.5	58.3	60.6	54.7	54.8	53.1 (2013)
이스라엘	42.3	45.0	39.7	39.2	42.0	36.6 (2014)
이탈리아	69.6	76.5	64.2	67.2	72.8	62.7 (2012)
일본	62.7	81.6	49.0	50.8	64.8	39.9 (2014)
<b>한국</b>	<b>86.0</b>	<b>109.0</b>	<b>72.3</b>	<b>71.6</b>	<b>87.6</b>	<b>61.1 (2013)</b>
라트비아	200.7	240.1	175.7	196.6	229.2	176.1 (2014)
룩셈부르크	70.5	76.4	65.0	49.9	40.3	39.5 (2014)
멕시코	66.6	72.1	62.4	57.8	62.8	53.8 (2014)
네덜란드	51.8	52.8	50.1	49.8	51.9	47.4
뉴질랜드	63.8	59.5	65.4	63.5	56.7	66.7 (2012)
노르웨이	58.0	62.5	53.8	47.4	50.7	44.6 (2014)
폴란드	101.2	116.1	89.7	79.6	91.1	70.1 (2014)
포르투갈	113.1	127.1	102.5	85.4	95.8	77.1 (2014)
슬로바키아	136.7	157.4	122.0	110.8	133.7	94.9 (2014)
슬로베니아	91.6	110.3	79.7	77.8	86.9	70.9
스페인	54.0	59.0	49.5	43.3	47.7	39.4 (2014)
스웨덴	61.4	65.1	57.8	48.1	53.3	43.8
스위스	40.6	45.7	36.9	37.2	39.3	35.5 (2013)
터키	105.2	109.4	101.3	100.8	107.8	95.4 (2013)
영국	67.6	68.2	66.0	53.2	53.8	51.8 (2013)
미국	43.8	44.8	42.4	41.5	43.0	39.8 (2014)
<b>평균<sup>1)</sup>(35)</b>	<b>76.4</b>	<b>84.3</b>	<b>70.4</b>	<b>64.5</b>	<b>71.0</b>	<b>59.3</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4-1]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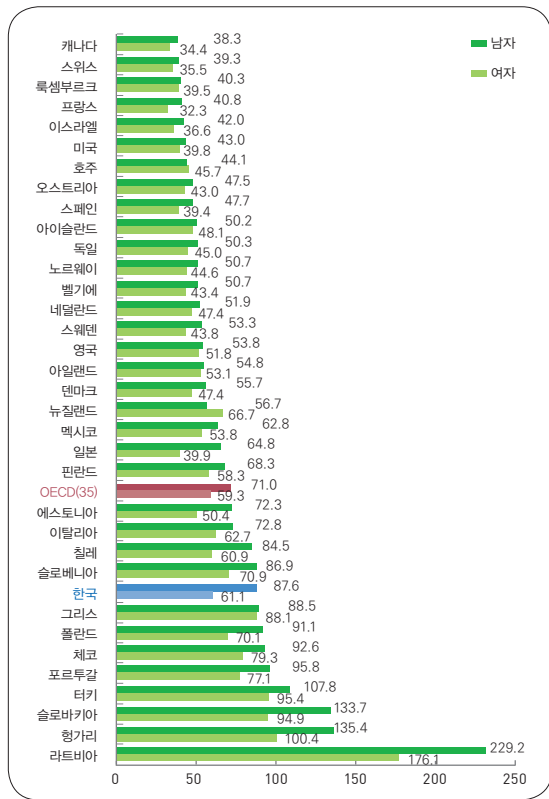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그림4-2]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8.0명 (2013년)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일본(34.1명,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10년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42.8명으로 3년간 4.8명 줄어듦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게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남성 평균 152.1명, 여성 평균 83.5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1.8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라트비아(327.5명, 2014년), 헝가리(288.3명), 슬로바키아(290.8명, 2014년)는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높음

〈표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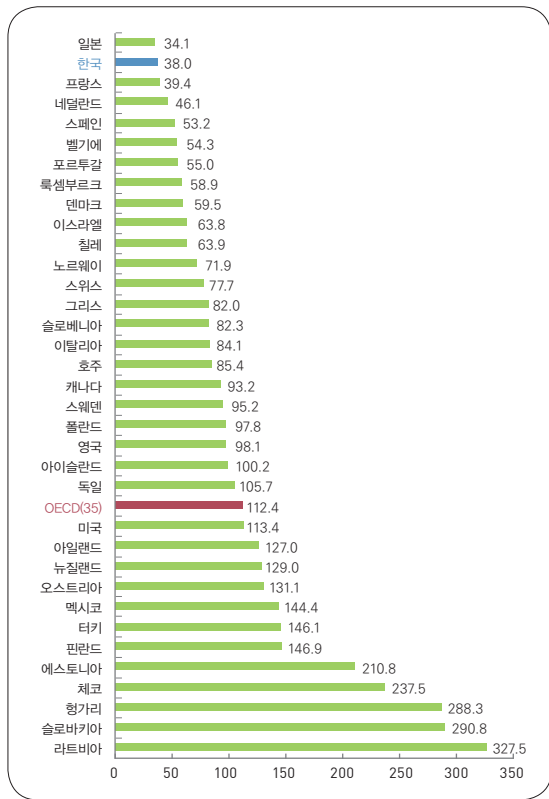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02.7	133.1	77.8	85.4	110.8	63.8 (2014)
오스트리아	149.7	201.6	114.5	131.1	174.1	100.0 (2014)
벨기에	72.0	106.6	48.4	54.3	80.0	35.6 (2014)
캐나다	102.3	138.7	73.6	93.2	125.9	66.8 (2012)
칠레	72.4	100.2	51.1	63.9	89.2	43.6 (2014)
체코	251.0	318.4	203.6	237.5	297.5	193.9
덴마크	84.9	113.4	63.6	59.5	82.7	41.5 (2014)
에스토니아	302.3	427.5	235.9	210.8	301.2	159.4 (2014)
핀란드	186.5	265.2	132.6	146.9	207.4	103.0 (2014)
프랑스	44.9	68.6	28.3	39.4	60.4	24.4 (2013)
독일	123.8	164.6	93.2	105.7	146.0	76.4 (2014)
그리스	84.4	115.1	57.4	82.0	116.0	52.6 (2014)
헝가리	320.3	401.4	265.1	288.3	366.4	236.1
아이슬란드	132.3	200.4	81.3	100.2	145.7	65.4
아일랜드	135.9	186.4	96.7	127.0	174.8	88.9 (2013)
이스라엘	79.5	106.7	58.8	63.8	83.8	48.3 (2014)
이탈리아	84.6	115.9	62.3	84.1	114.2	62.6 (2012)
일본	39.7	56.5	27.0	34.1	49.4	22.2 (2014)
<b>한국</b>	<b>42.8</b>	<b>55.1</b>	<b>34.1</b>	<b>38.0</b>	<b>48.8</b>	<b>30.0 (2013)</b>
라트비아	369.8	543.9	277.8	327.5	456.5	253.1 (2014)
룩셈부르크	66.8	100.1	43.3	58.9	90.1	34.3 (2014)
멕시코	147.1	182.2	119.0	144.4	179.3	116.2 (2014)
네덜란드	60.1	86.9	41.3	46.1	65.6	31.5
노르웨이	138.6	176.9	107.1	129.0	166.8	97.2 (2012)
노르웨이	95.9	132.2	68.2	71.9	97.2	51.6 (2014)
폴란드	129.4	181.8	93.3	97.8	138.5	69.2 (2014)
포르투갈	59.0	79.0	44.1	55.0	76.0	38.4 (2014)
슬로바키아	404.4	497.2	343.1	290.8	359.9	244.2 (2014)
슬로베니아	93.9	136.9	65.5	82.3	117.0	56.0
스페인	64.6	92.8	43.1	53.2	78.3	33.8 (2014)
스웨덴	123.0	169.6	88.2	95.2	131.2	67.0
스위스	88.5	122.3	64.1	77.7	108.3	56.0 (2013)
터키	120.2	154.4	92.7	146.1	190.8	110.9 (2013)
영국	112.9	158.8	77.2	98.1	138.2	66.3 (2013)
미국	128.4	173.3	94.6	113.4	156.2	80.8 (2014)
<b>평균<sup>1)</sup>(35)</b>	<b>131.8</b>	<b>179.0</b>	<b>99.1</b>	<b>112.4</b>	<b>152.1</b>	<b>83.5</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5-1]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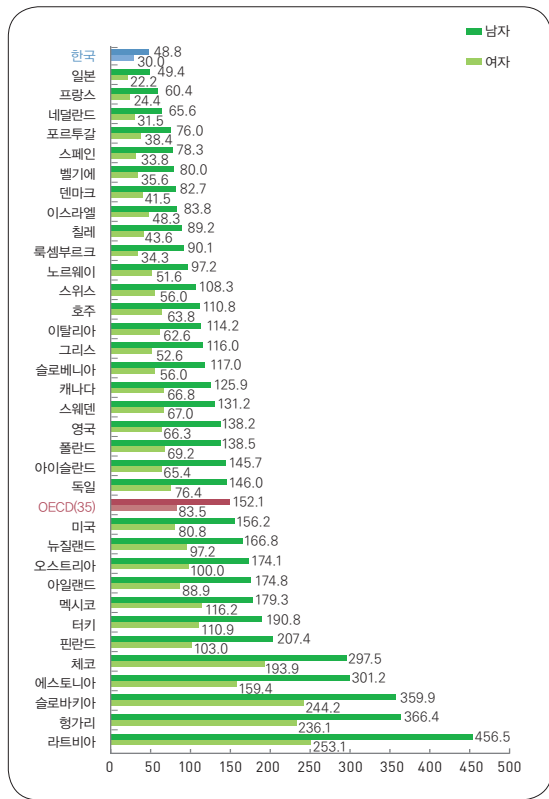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그림5-2]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0.0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0명)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0년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67.5명으로 3년 사이 2.5명 늘어남
  - 남성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112.0명(2013년), 여성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48.9명(2013년)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하여 2.3배 높음
-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에 비해 높음
  - OECD 회원국 중 핀란드(26.3명, 2014년), 라트비아(28.7명, 2014년)는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30명 이하로 가장 낮으며, 영국(110.1명, 2013년)은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100명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6〉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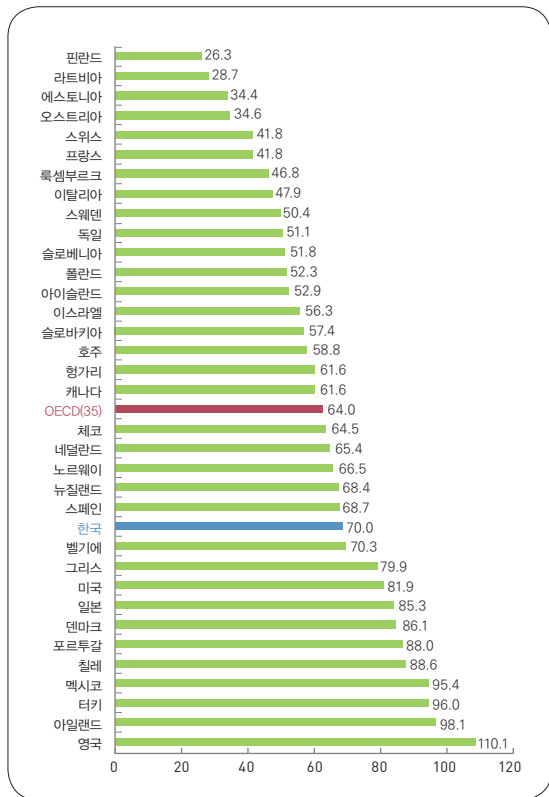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57.0	72.0	46.5	58.8	72.8	48.7 (2014)
오스트리아	42.4	60.7	31.4	34.6	50.1	24.9 (2014)
벨기에	83.4	123.2	59.2	70.3	98.3	52.4 (2014)
캐나다	61.4	79.3	50.1	61.6	77.8	50.8 (2012)
칠레	99.5	126.9	81.2	88.6	113.0	72.2 (2014)
체코	59.5	85.4	43.7	64.5	91.1	47.2
덴마크	97.7	115.5	87.5	86.1	102.7	75.9 (2014)
에스토니아	28.7	55.3	15.7	34.4	70.9	17.0 (2014)
핀란드	31.5	52.6	19.5	26.3	42.4	16.2 (2014)
프랑스	39.6	58.7	27.8	41.8	59.5	30.7 (2013)
독일	56.1	78.9	41.9	51.1	71.4	38.0 (2014)
그리스	78.3	89.2	69.5	79.9	97.4	66.5 (2014)
헝가리	57.7	89.5	39.5	61.6	92.4	44.5
아이슬란드	73.2	75.7	70.5	52.9	49.3	55.7
아일랜드	95.6	113.1	83.7	98.1	120.6	83.9 (2013)
이스라엘	53.6	64.4	45.6	56.3	70.5	45.7 (2014)
이탈리아	44.6	69.5	30.4	47.9	72.0	33.7 (2012)
일본	92.1	148.8	60.3	85.3	135.8	55.2 (2014)
<b>한국</b>	<b>67.5</b>	<b>112.3</b>	<b>45.6</b>	<b>70.0</b>	<b>112.0</b>	<b>48.9 (2013)</b>
라트비아	28.0	54.9	13.3	28.7	56.9	13.9 (2014)
룩셈부르크	56.9	75.5	47.1	48.7	63.5	37.5 (2014)
멕시코	103.4	132.0	83.2	95.4	119.6	77.5 (2014)
네덜란드	76.3	105.9	59.5	65.4	83.7	54.6
뉴질랜드	63.3	77.9	53.6	68.4	80.2	60.6 (2012)
노르웨이	71.7	92.1	59.4	66.5	84.4	55.2 (2014)
폴란드	54.8	90.0	35.2	52.3	82.6	35.1 (2014)
포르투갈	93.1	131.4	69.5	88.0	121.4	66.7 (2014)
슬로바키아	75.8	114.3	54.0	57.4	90.4	38.8 (2014)
슬로베니아	52.9	81.2	38.8	51.8	75.1	39.7
스페인	72.1	110.3	47.3	68.7	102.9	46.1 (2014)
스웨덴	41.9	53.2	34.7	50.4	59.9	44.6
스위스	39.9	57.5	29.2	41.8	57.4	31.8 (2013)
터키	75.7	109.7	52.4	96.0	138.5	67.1 (2013)
영국	104.9	124.8	91.5	110.1	130.4	96.2 (2013)
미국	81.7	99.1	70.5	81.9	97.4	71.5 (2014)
<b>평균<sup>1)</sup>(35)</b>	<b>66.1</b>	<b>90.9</b>	<b>51.1</b>	<b>64.0</b>	<b>87.0</b>	<b>49.9</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6-1]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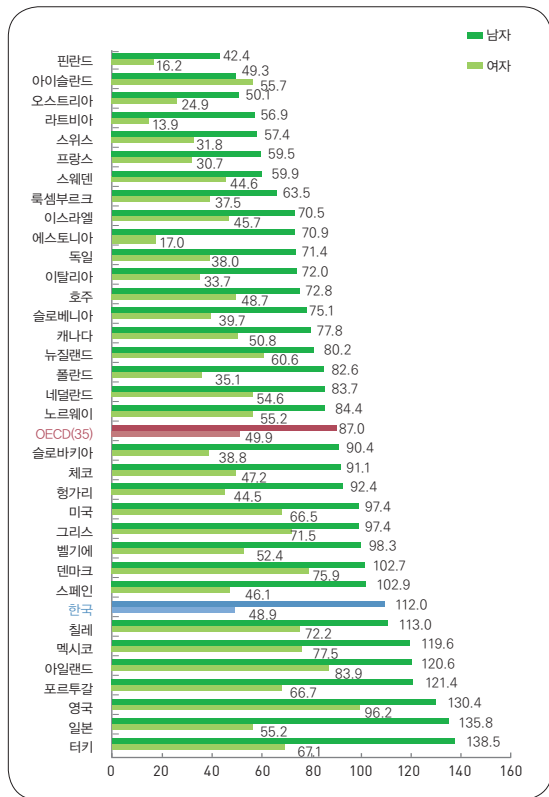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그림6-2]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6.6명 높음

-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임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9.5	29.9	26.2	28.7	29.0	33.8	33.5	33.3	29.1	28.7
남성	45.0	45.1	39.9	41.9	41.9	48.3	49.6	50.0	43.2	43.3
여성	17.7	18.6	15.9	19.3	19.4	22.8	21.4	20.2	17.8	16.8

■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남성 19.5명, 여성 5.6명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OECD 평균 자살률은 2010년 12.7명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 2013년)와 그리스(4.7명, 2014년)이며, 헝가리(19.4명)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표7〉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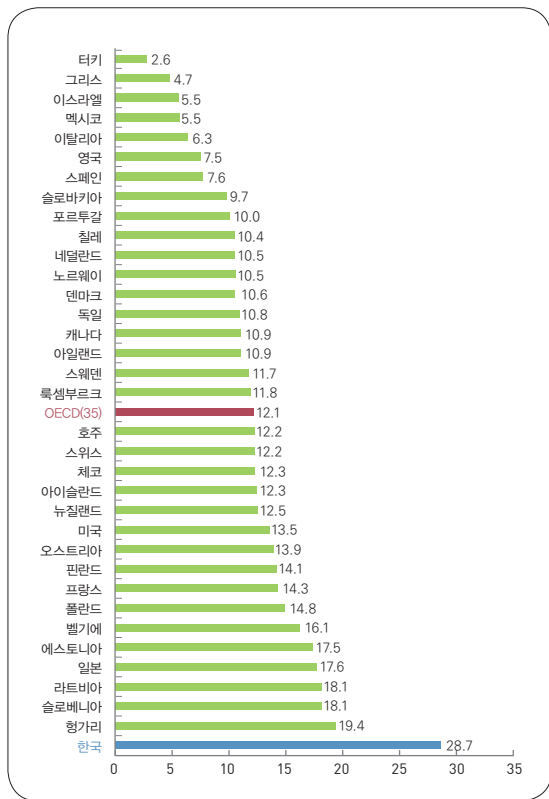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0.9	17.1	4.9	12.2	18.8	6.0 (2014)
오스트리아	13.9	23.3	6.0	13.9	22.7	6.4 (2014)
벨기에	17.8	26.8	9.6	16.1	23.6	9.1 (2014)
캐나다	11.2	17.2	5.4	10.9	16.7	5.3 (2012)
칠레	12.2	20.8	4.4	10.4	18.1	3.5 (2014)
체코	13.5	23.8	4.4	12.3	21.1	4.4
덴마크	9.8	14.8	5.3	10.6	16.3	5.2 (2014)
에스토니아	15.9	28.9	5.1	17.5	31.9	6.0 (2014)
핀란드	17.3	26.8	8.3	14.1	21.9	6.7 (2014)
프랑스	15.9	25.2	7.9	14.3	23.1	6.7 (2013)
독일	10.8	17.3	5.1	10.8	17.3	5.2 (2014)
그리스	3.1	5.6	0.7	4.7	7.8	1.9 (2014)
헝가리	23.4	41.1	9.2	19.4	32.8	8.4
아이슬란드	14.8	23.1	6.6	12.3	17.6	6.7
아일랜드	11.0	17.4	4.6	10.9	17.7	4.2 (2013)
이스라엘	7.4	12.6	2.6	5.5	8.8	2.4 (2014)
이탈리아	5.8	9.8	2.4	6.3	10.5	2.6 (2012)
일본	21.2	31.4	11.5	17.6	25.4	10.2 (2014)
<b>한국</b>	<b>33.5</b>	<b>49.6</b>	<b>21.4</b>	<b>28.7</b>	<b>43.3</b>	<b>16.8 (2013)</b>
라트비아	19.7	39.1	4.5	18.1	33.5	5.8 (2014)
룩셈부르크	10.3	17.1	4.2	11.8	18.3	5.3 (2014)
멕시코	4.8	8.5	1.5	5.5	9.5	1.9 (2014)
네덜란드	9.2	13.3	5.4	10.5	14.7	6.5
뉴질랜드	12.4	18.6	6.7	12.5	18.8	6.4 (2012)
노르웨이	11.2	15.9	6.7	10.5	15.5	5.7 (2014)
폴란드	15.9	29.1	4.0	14.8	26.7	3.8 (2014)
포르투갈	9.3	15.9	4.2	10.0	16.5	4.6 (2014)
슬로바키아	11.3	20.7	3.2	9.7	18.1	2.7 (2014)
슬로베니아	18.6	32.8	6.6	18.1	30.9	7.3
스페인	6.3	10.5	2.7	7.6	12.0	3.7 (2014)
스웨덴	11.7	17.5	6.1	11.7	17.1	6.6
스위스	11.9	18.1	6.5	12.2	18.9	6.3 (2013)
터키	2.4	3.8	1.1	2.6	4.1	1.3 (2013)
영국	6.7	10.5	3.0	7.5	12.2	3.0 (2013)
미국	12.5	20.5	5.2	13.5	21.6	6.0 (2014)
<b>평균<sup>*)</sup>(35)</b>	<b>12.7</b>	<b>20.7</b>	<b>5.6</b>	<b>12.1</b>	<b>19.5</b>	<b>5.6</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7-1]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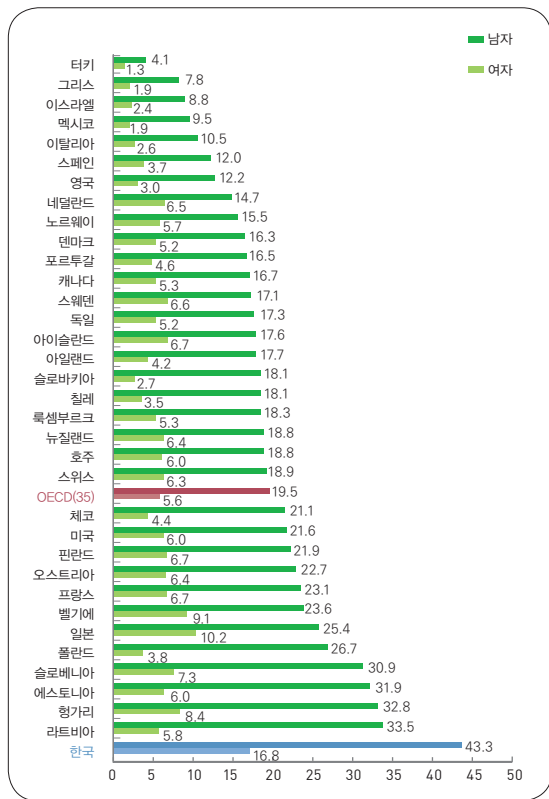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그림7-2]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2012), 프랑스·아일랜드·한국·스위스·터키·영국(2013),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일본·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미국(2014)

##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 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5%로 OECD 평균 68.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70.7%, 여자 65.9%인 반면, 우리나라는 남자 37.3%, 여자 27.9%로 남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한국(32.5%)과 라트비아(46.2%), 포르투갈(46.4%)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으며, 뉴질랜드(88.9%), 캐나다(88.1%, 2014년), 미국(88.1%), 호주(85.2%, 2014년)에서 높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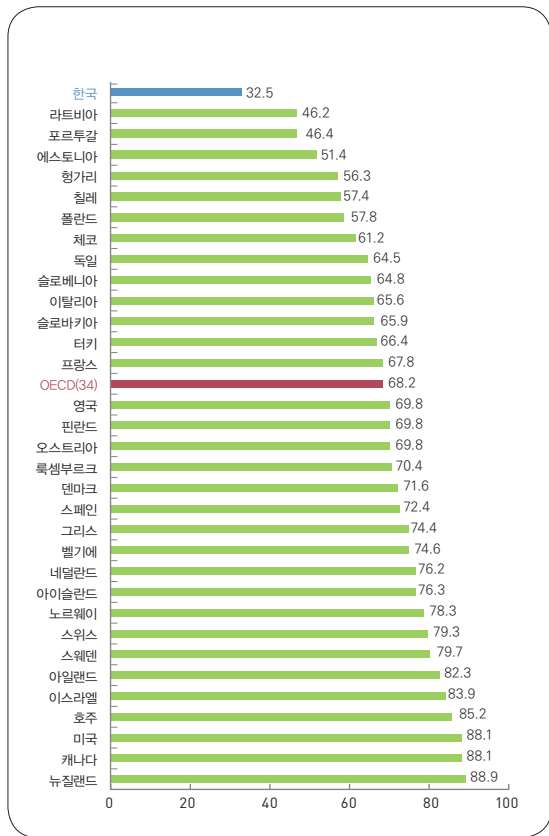
(단위: %)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5.4	85.4	85.4 (2011)	85.2	85.4	85.1 (2014)
오스트리아	69.6	72.1	67.2	69.8	71.8	67.9
벨기에	73.0	75.4	70.8	74.6	77.9	71.5
캐나다	88.1	88.1	88.1	88.1	88.1	88.2 (2014)
칠레	59.1	67.3	51.4 (2009)	57.4	62.3	53.1
체코	62.2	64.9	60.0	61.2	63.4	59.6
덴마크	71.0	72.8	69.3	71.6	73.1	70.1
에스토니아	52.7	55.6	50.8	51.4	53.5	50.0
핀란드	68.3	70.1	66.7	69.8	70.3	69.3
프랑스	67.3	69.8	64.9	67.8	70.2	65.6
독일	65.2	66.4	64.1	64.5	66.0	63.1
그리스	75.5	77.8	73.3	74.4	77.2	71.8
헝가리	55.0	59.0	51.4	56.3	59.6	53.3
아이슬란드	77.8	79.4	76.2	76.3	80.1	72.6
아일랜드	82.8	83.4	82.2	82.3	83.0	81.7
이스라엘	81.1	83.6	78.8	83.9	85.6	82.2
이탈리아	66.7	70.5	63.2	65.6	68.9	62.6
일본	30.0	31.5	28.6	35.4	37.1	33.8 (2013)
<b>한국</b>	<b>37.6</b>	<b>41.7</b>	<b>33.6</b>	<b>32.5</b>	<b>37.3</b>	<b>27.9</b>
라트비아	47.8	53.0	43.6	46.2	51.3	42.1
룩셈부르크	75.3	76.7	73.9	70.4	72.4	68.5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78.0	80.3	75.9	76.2	80.1	72.6
뉴질랜드	89.7	89.6	89.8 (2007)	88.9	89.1	88.7
노르웨이	76.7	79.1	74.3	78.3	80.2	76.5
폴란드	57.8	61.4	54.7	57.8	61.5	54.6
포르투갈	49.2	54.7	44.1	46.4	51.5	41.8
슬로바키아	63.5	68.3	59.2	65.9	69.7	62.3
슬로베니아	59.6	63.2	56.3	64.8	68.1	61.6
스페인	71.8	75.4	68.4	72.4	75.3	69.6
스웨덴	80.0	82.2	77.8	79.7	82.3	77.1
스위스	81.5	84.2	78.9	79.3	81.6	77.1 (2014)
터키	66.0	71.4	60.8	66.4	71.0	61.9
영국	79.4	80.1	78.8	69.8	69.8	69.8
미국	87.6	88.6	86.7	88.1	88.5	87.7
<b>평균<sup>1)</sup>(34)</b>	<b>68.6</b>	<b>71.3</b>	<b>66.2</b>	<b>68.2</b>	<b>70.7</b>	<b>65.9</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8-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전체),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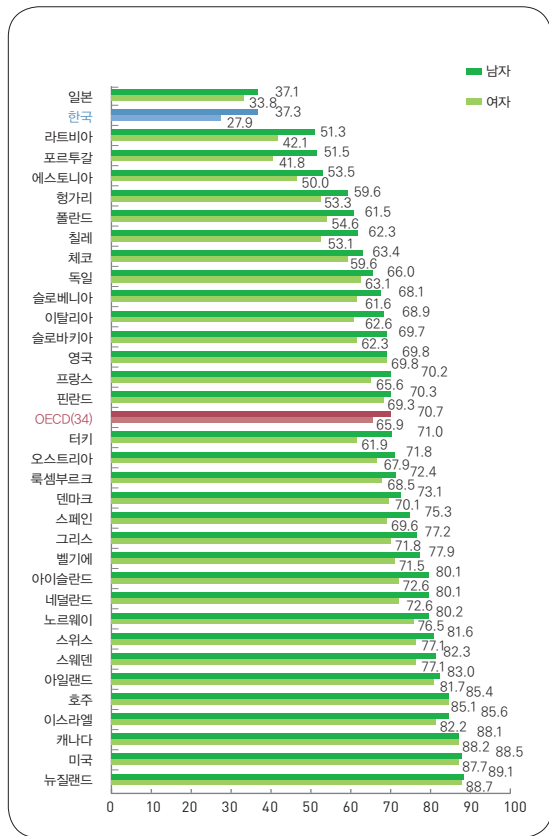
(단위:%)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일본(2013), 호주-캐나다-스위스(2014)

[그림8-2]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남자, 여자), 2015년

(단위:%)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일본(2013), 호주-캐나다-스위스(2014)

제II장

##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9. 주류 소비량

10. 흡연인구 비율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II.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 9. 주류 소비량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한 수준임
  - 2010년 주류 소비량은 9.0리터로, 5년간 0.1리터가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주류 소비량은 2010년 9.2리터에서 2015년 9.0리터로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벨기에(12.6리터, 2014년)는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터키(1.4리터), 이스라엘(2.6리터, 2014년)은 3리터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남
  - OECD 회원국 중 13개의 국가에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10리터 이상의 주류를 소비함

〈표9〉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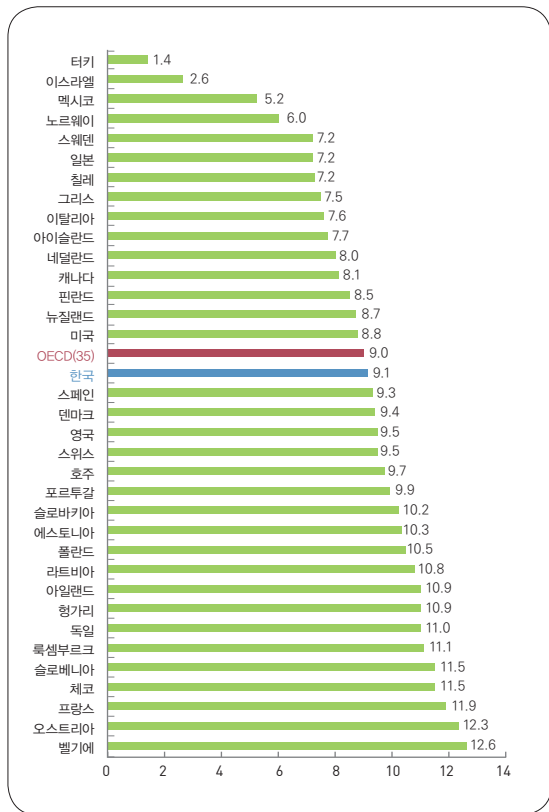
(단위: 순수알코올 ℓ)

	2010	2015
호주	10.3	9.7 (2013)
오스트리아	12.1	12.3 (2014)
벨기에	10.2	12.6 (2014)
캐나다	8.4	8.1
칠레	7.9	7.2 (2014)
체코	11.4	11.5
덴마크	10.3	9.4 (2013)
에스토니아	11.4	10.3
핀란드	9.7	8.5
프랑스	12.3	11.9
독일	11.2	11.0 (2014)
그리스	9.0	7.5 (2014)
헝가리	10.8	10.9 (2014)
아이슬란드	6.8	7.7
아일랜드	11.6	10.9
이스라엘	2.6	2.6 (2014)
이탈리아	7.0	7.6 (2014)
일본	7.3	7.2
<b>한국</b>	<b>9.0</b>	<b>9.1</b>
라트비아	9.8	10.8
룩셈부르크	11.4	11.1 (2014)
멕시코	6.5	5.2
네덜란드	9.2	8.0
뉴질랜드	9.6	8.7
노르웨이	6.6	6.0
폴란드	10.0	10.5
포르투갈	12.3	9.9 (2014)
슬로바키아	10.1	10.2
슬로베니아	10.3	11.5
스페인	9.8	9.3 (2013)
스웨덴	7.3	7.2
스위스	10.0	9.5
터키	1.5	1.4
영국	10.1	9.5
미국	8.6	8.8 (2014)
평균 <sup>1)</sup> (35)	9.2	9.0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9-1]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2015년)

(단위: 순수알코올 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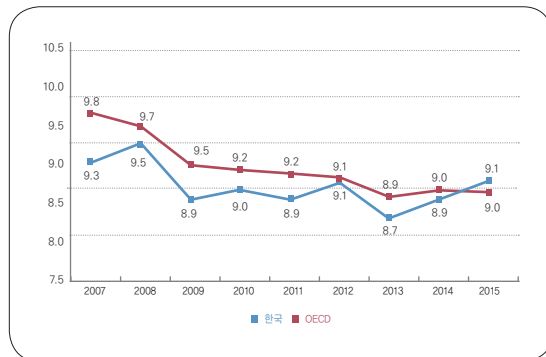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덴마크·스페인(2013), 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칠레·독일·그리스·헝가리·이스라엘·이탈리아·룩셈부르크·포르투갈·미국(2014)

[그림9-2] 연도별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2007~2015년)

(단위: 순수알코올 ℓ)



주) OECD: 35개국 기준, 각 해당년도 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 10. 흡연인구 비율(흡연율)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흡연율은 17.3%로 OECD 평균(18.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여성 흡연율(3.4%)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31.4%)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10년 흡연율은 22.9%로 5년간 5.6% 감소했고 특히 남성 흡연율이 40.8%에서 31.4%로 큰 감소를 보임
-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와 터키(27.3%, 2014년)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7.6%)는 흡연율이 가장 낮음
  - 2010년과 2015년 사이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흡연율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듦

〈표10〉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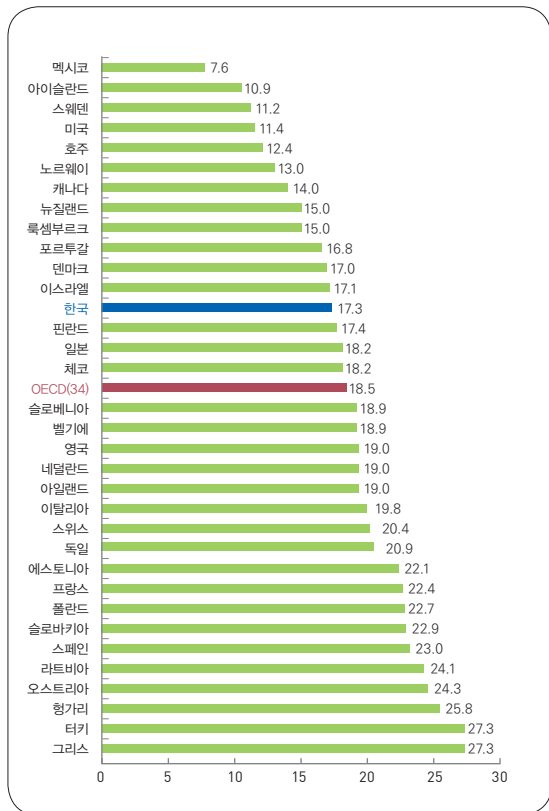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5.4	16.7	14.1	12.4	14.0	10.8 (2016)
오스트리아	-	-	-	24.3	26.5	22.1 (2014)
벨기에	20.5	23.6	17.7 (2008)	18.9	21.6	16.4 (2014)
캐나다	16.3	19.0	13.7	14.0	16.3	11.7 (2014)
칠레	29.8	33.7	26.0 (2009)	-	-	-
체코	22.8	29.3	16.5	18.2	21.8	14.8
덴마크	20.9	22.7	19.3	17.0	16.0	17.0
에스토니아	26.2	36.8	18.7	22.1	31.4	15.8 (2014)
핀란드	19.0	23.2	15.7	17.4	18.7	14.5
프랑스	23.3	26.4	20.7	22.4	25.8	19.4 (2014)
독일	21.9	26.4	17.6 (2009)	20.9	25.1	17.1 (2013)
그리스	31.9	38.0	26.1 (2009)	27.3	33.8	21.4 (2014)
헝가리	26.5	31.9	21.7 (2009)	25.8	31.6	20.8 (2014)
아이슬란드	14.2	14.5	13.9	10.9	10.7	11.0
아일랜드	24.0	25.0	22.0 (2007)	19.0	20.0	17.0
이스라엘	18.5	24.8	12.6	17.1	23.2	11.4 (2014)
이탈리아	23.1	29.6	17.1	19.8	24.9	15.8
일본	19.5	32.2	8.4	18.2	30.1	7.9
<b>한국</b>	<b>22.9</b>	<b>40.8</b>	<b>5.2</b>	<b>17.3</b>	<b>31.4</b>	<b>3.4</b>
라트비아	27.9	46.0	13.0 (2008)	24.1	36.0	14.5 (2014)
룩셈부르크	18.3	20.9	15.7	15.0	16.0	13.9
멕시코	7.6	11.8	3.7 (2009)	7.6	11.9	3.6
네덜란드	20.9	23.1	18.8	19.0	21.2	16.9
뉴질랜드	18.1	19.3	17.0 (2007)	15.0	16.1	13.9
노르웨이	19.0	19.0	19.0	13.0	13.0	13.0
폴란드	23.8	30.9	17.9 (2009)	22.7	28.8	17.2 (2014)
포르투갈	-	-	-	16.8	23.5	10.9 (2014)
슬로바키아	19.5	27.1	12.5 (2009)	22.9	30.4	15.8 (2014)
슬로베니아	18.9	22.4	15.5 (2007)	18.9	21.8	16.0 (2014)
스페인	26.2	31.2	21.3 (2009)	23.0	27.6	18.6 (2014)
스웨덴	13.6	14.7	12.5	11.2	11.7	10.7
스위스	20.4	23.4	17.6 (2007)	20.4	23.1	17.8 (2012)
터키	25.4	39.0	12.3	27.3	41.8	13.1 (2014)
영국	20.0	21.0	20.0	19.0	20.0	17.0 (2014)
미국	15.1	16.7	13.6	11.4	12.2	10.7
평균 <sup>1)</sup> (32)	20.7	25.9	16.0	18.4	22.8	14.3
최근평균 <sup>2)</sup> (34)				18.5	22.9	14.5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0-1]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전체), 2015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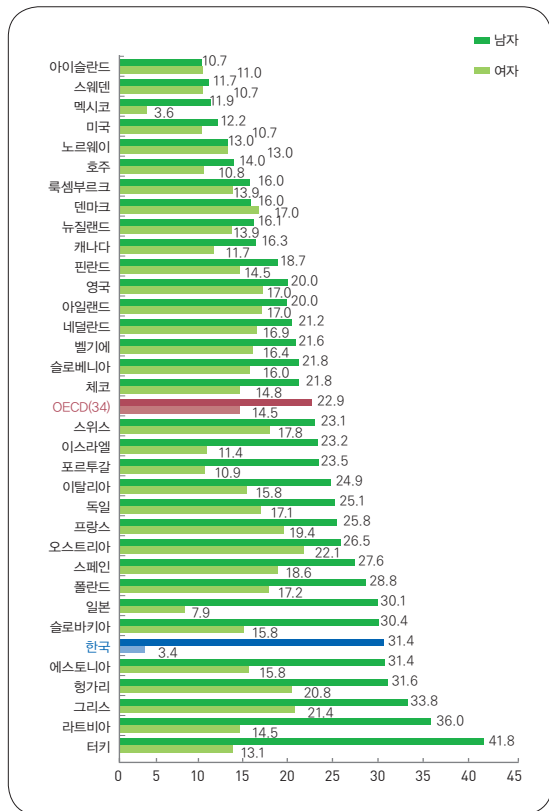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스위스(2012), 독일(2013), 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에스토니아·프랑스·그리스·헝가리·이스라엘·라트비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터키·영국(2014), 호주(2016)

[그림10-2]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남자, 여자), 2015년

(단위:%)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스위스(2012), 독일(2013), 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에스토니아·프랑스·그리스·헝가리·이스라엘·라트비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터키·영국(2014), 호주(2016)

##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3.4%로 자료를 제출한 15개 OECD 회원국 중 일본(23.8%)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56.7%)에 비해 매우 낮음
  -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이 2010년 30.2%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OECD 회원국의 평균은 55.6%에서 56.1%로 소폭 상승함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남성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높으나, 멕시코에서는 여성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더 높음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는 비만 및 과체중 인구의 비율이 72.5%(2016년)로 가장 높으며 미국은 70.1%(2014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표11〉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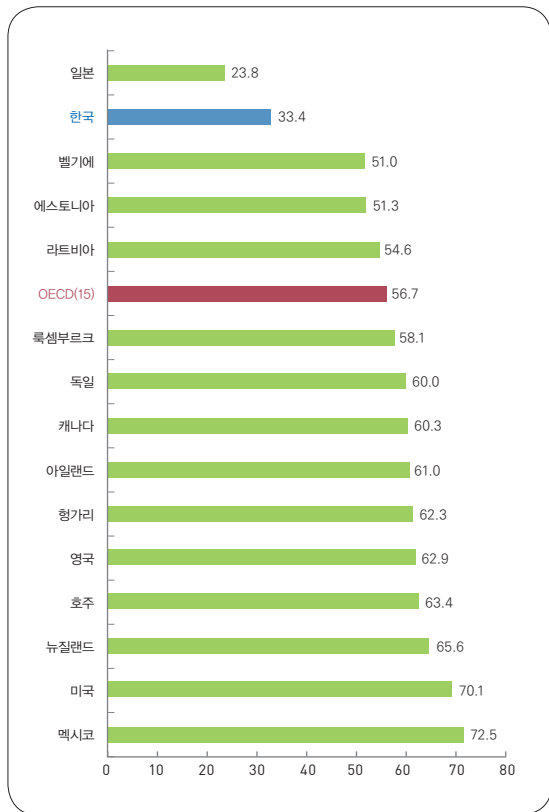
	2010					201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3.4	70.3	56.2	(2011)		63.4	70.8	56.3	(2014)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51.0	55.5	46.4	(2014)
캐나다	58.6	64.8	52.5			60.3	68.0	52.6	(2013)
칠레	64.5	64.6	64.3	(2009)		-	-	-	
체코	55.0	61.0	49.0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51.3	58.1	44.9	(2014)
핀란드	65.0	70.2	59.8	(2011)		-	-	-	
프랑스	49.3	57.1	41.4	(2007)		-	-	-	
독일	-	-	-			60.0	67.1	52.9	(2012)
그리스	-	-	-			-	-	-	
헝가리	61.6	62.7	60.7	(2009)		62.3	64.8	60.0	(2014)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61.0	67.0	56.0	(2007)		61.0	68.0	54.0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25.3	30.4	21.1			23.8	29.5	19.2	
한국	30.2	34.8	25.7			33.4	38.5	28.4	
라트비아	-	-	-			54.6	56.3	53.0	(2014)
룩셈부르크	59.1	66.2	50.2			58.1	65.8	48.7	(2014)
멕시코	65.6	-	-	(2007)		72.5	69.4	75.6	(2016)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64.7	69.1	60.6	(2009)		65.6	70.1	61.5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51.5	57.8	47.7	(2008)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55.4	52.7	58.0	(2011)		-	-	-	
영국	62.8	67.8	57.8			62.9	67.8	58.1	
미국	68.8	74.0	63.6			70.1	73.7	66.7	(2014)
평균 <sup>(10)</sup>	55.6	60.7	50.4			56.1	61.7	50.6	
최근평균 <sup>(15)</sup>						56.7	61.6	51.9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1-1]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전체), 2015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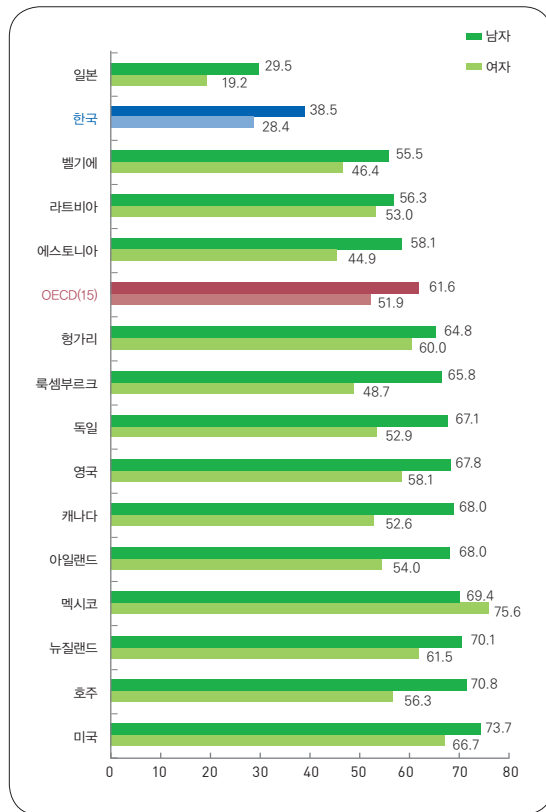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독일(2012), 캐나다(2013), 호주·벨기에·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룩셈부르크·미국(2014), 멕시코(2016)

[그림11-2]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남자, 여자), 2015년

(단위:%)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독일(2012), 캐나다(2013), 호주·벨기에·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룩셈부르크·미국(2014), 멕시코(2016)

제3장

## 보건의료자원

- 12. 총 병원병상
-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 14. 임상 의사
- 15. 임상 간호사
- 16. CT 스캐너
- 17. MRI 장비
- 18. 의학계열 졸업자



# Ⅲ. 보건의료자원



## 12. 총 병원병상

-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5병상으로 OECD 평균(4.7병상)보다 2.4배 많음
  - 우리나라와 칠레, 터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수는 같거나 줄어들었으며 그 중 우리나라는 1.3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2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음
  - 멕시코(1.5병상), 칠레(2.1병상)는 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병원병상수를 기록함

〈표12〉 총 병원병상수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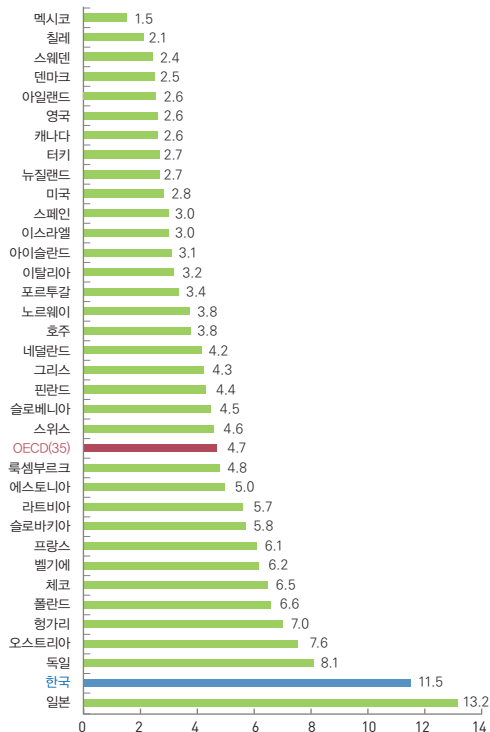
	2010	2015
호주	3.8	3.8 (2014)
오스트리아	7.7	7.6
벨기에	6.4	6.2
캐나다	2.8	2.6
칠레	2.0	2.1
체코	7.0	6.5
덴마크	3.5	2.5
에스토니아	5.3	5.0
핀란드	5.9	4.4
프랑스	6.4	6.1
독일	8.3	8.1
그리스	4.5	4.3
헝가리	7.2	7.0
아이슬란드	3.6	3.1
아일랜드	2.7	2.6
이스라엘	3.2	3.0
이탈리아	3.6	3.2
일본	13.5	13.2
<b>한국</b>	<b>8.7</b>	<b>11.5</b>
라트비아	5.7	5.7
룩셈부르크	5.4	4.8
멕시코	1.6	1.5
네덜란드	4.7 (2009)	4.2 (2013)
뉴질랜드	2.8	2.7
노르웨이	4.3	3.8
폴란드	6.6	6.6
포르투갈	3.4	3.4
슬로바키아	6.5	5.8
슬로베니아	4.6	4.5
스페인	3.1	3.0
스웨덴	2.7	2.4
스위스	5.0	4.6
터키	2.5	2.7
영국	2.9	2.6
미국	3.1	2.8 (2014)
평균 <sup>1)</sup> (35)	4.9	4.7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2] 총 병원병상수, 2015년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네덜란드(2013), 호주-미국(2014)

### 13. 급성기외로 병원병상

- 인구 1,000명당 급성기외로 병원병상수는 7.3병상(2014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3.7병상)에 비해 매우 높음
  - 2010년과 2015년 사이 OECD 회원국 중 급성기외로 병원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6.4병상→7.3병상, 2014년), 네덜란드(2.9병상→3.6병상, 2013년) 뿐임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급성기외로 병원병상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급성기외로 병원병상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7.9병상)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멕시코(1.5병상), 칠레 및 캐나다(2.0병상)는 인구 1,000명당 급성기외로 병원병상수가 2.0병상 이하로 낮음

〈표13〉 급성기의로 병원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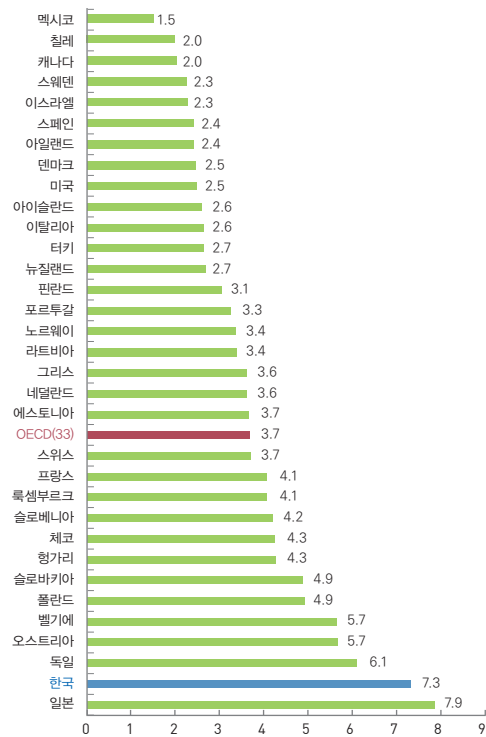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2010	2015
호주	-	-
오스트리아	6.2	5.7
벨기에	5.9	5.7
캐나다	2.1	2.0
칠레	2.0	2.0
체코	4.9	4.3
덴마크	3.4	2.5
에스토니아	3.8	3.7
핀란드	3.4	3.1
프랑스	4.3	4.1
독일	6.2	6.1
그리스	3.7	3.6
헝가리	4.5	4.3
아이슬란드	3.0	2.6
아일랜드	2.5	2.4
이스라엘	2.4	2.3
이탈리아	3.0	2.6
일본	8.1	7.9
<b>한국</b>	<b>6.4</b>	<b>7.3 (2014)</b>
라트비아	3.5	3.4
룩셈부르크	4.1	4.1
멕시코	1.6	1.5
네덜란드	2.9	3.6 (2013)
뉴질랜드	2.8	2.7
노르웨이	3.8	3.4
폴란드	5.0	4.9
포르투갈	3.3	3.3
슬로바키아	5.4	4.9
슬로베니아	4.3	4.2
스페인	2.5	2.4
스웨덴	2.5	2.3
스위스	4.1	3.7
터키	2.5	2.7
영국	-	-
미국	2.7	2.5 (2014)
평균 <sup>1)</sup> (33)	3.8	3.7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3] 급성기의로 병원병상수, 2015년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네덜란드(2013), 한국·미국(2014)

## 14. 임상 의사

■ 임상 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010년 임상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이었으며, 5년 간 0.2명이 증가하였고, 2010년과 2015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또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가 0.2명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임상 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1명을 기록함

- 우리나라는 폴란드(2.3명), 멕시코 및 일본(2.4명)과 함께 임상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지난 5년간 호주, 독일,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임상 의사수가 0.4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그 중 멕시코는 2010년 한국과 동일하게 2.0명이었으나 2015년 2.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0.2명 더 증가함

〈표14〉 임상 의사수

(단위: 명/인구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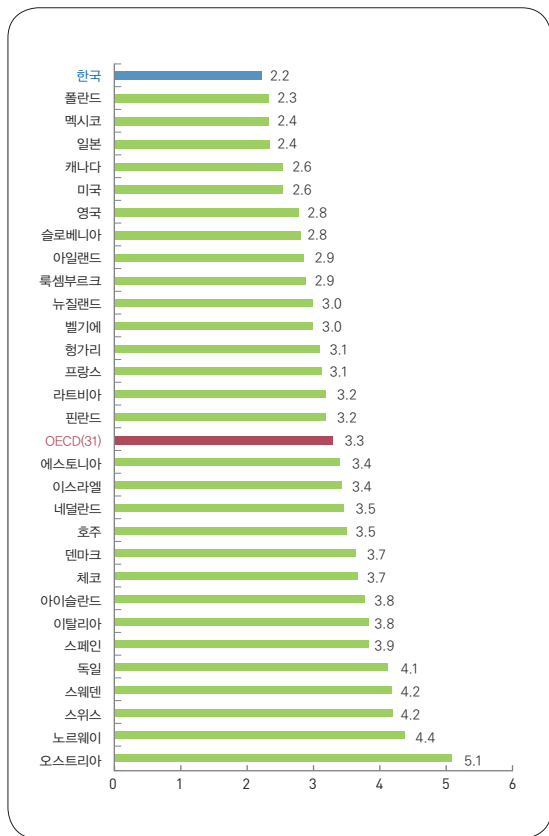
	2010	2015
호주	3.1 (2009)	3.5
오스트리아	4.8	5.1
벨기에	2.9	3.0
캐나다	-	2.6
칠레	-	-
체코	3.6	3.7 (2013)
덴마크	3.6	3.7 (2014)
에스토니아	3.2	3.4
핀란드	3.0	3.2 (2014)
프랑스	3.1 (2011)	3.1
독일	3.7	4.1
그리스	-	-
헝가리	2.9	3.1
아이슬란드	3.6	3.8
아일랜드	2.7 (2011)	2.9
이스라엘	3.3	3.4
이탈리아	3.7 (2009)	3.8
일본	2.2	2.4 (2014)
<b>한국</b>	<b>2.0</b>	<b>2.2</b>
라트비아	3.1	3.2
룩셈부르크	2.8	2.9
멕시코	2.0	2.4
네덜란드	-	3.5
뉴질랜드	2.6	3.0
노르웨이	4.1	4.4
폴란드	2.2	2.3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3.0 (2007)	-
슬로베니아	2.4	2.8
스페인	3.8	3.9
스웨덴	3.9	4.2 (2014)
스위스	3.8	4.2
터키	-	-
영국	2.7	2.8
미국	2.4	2.6 (2014)
평균 <sup>1)</sup> (28)	3.1	3.3
최근 평균 <sup>2)</sup> (31)		3.3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4] 임상 의사수, 2015년

(단위: 명/인구1,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체코(2013), 덴마크·핀란드·일본·스웨덴·미국(2014)

## 15. 임상간호사

- 임상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OECD 평균 (9.5명)보다 3.6명 적음
  - 2010년 임상간호사 수는 4.6명으로 5년 사이 28.3% 증가하여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OECD회원국 중 스위스(18.0명), 노르웨이(17.3명), 덴마크(16.7명, 2014년), 아이슬란드(15.5명)는 인구 1,000명당 15명 이상의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함
  - 멕시코(2.8명), 그리스(3.2명), 라트비아(4.7명), 이스라엘(4.9명)은 5명 미만의 적은 간호 인력수를 기록함

〈표15〉 임상간호사

(단위: 명/인구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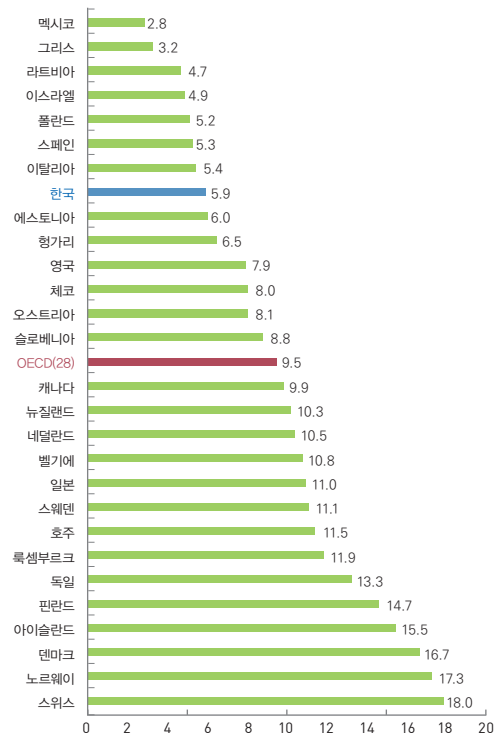
	2010	2015
호주	10.2 (2009)	11.5
오스트리아	7.7	8.1
벨기에	9.6	10.8
캐나다	9.4	9.9
칠레	-	-
체코	8.1	8.0
덴마크	15.8	16.7 (2014)
에스토니아	6.1	6.0
핀란드	13.9	14.7 (2014)
프랑스	-	-
독일	12.1	13.3
그리스	3.5	3.2
헝가리	6.2	6.5
아이슬란드	14.5	15.5
아일랜드	-	-
이스라엘	4.7	4.9
이탈리아	-	5.4
일본	10.1	11.0 (2014)
<b>한국</b>	<b>4.6</b>	<b>5.9</b>
라트비아	5.0	4.7
룩셈부르크	11.1	11.9
멕시코	2.4	2.8
네덜란드	8.4 (2008)	10.5
뉴질랜드	10.1	10.3
노르웨이	16.1	17.3
폴란드	5.3	5.2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8.2	8.8
스페인	5.2	5.3
스웨덴	11.1	11.1 (2014)
스위스	16.0	18.0
터키	-	-
영국	9.5	7.9
미국	-	-
평균 <sup>1)</sup> (27)	9.1	9.6
최근평균 <sup>2)</sup> (28)		9.5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5] 임상간호사, 2015년

(단위: 명/인구1,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덴마크·핀란드·일본·스웨덴(2014)

## 16. CT 스캐너

■ CT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7.0대로 OECD 평균 보유대수(26.1대)보다 많음

- 2010년 CT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5.2대로 5년간 1.8대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5대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인구 100만 명당 CT 스캐너 보유대수가 107.2대(2014년)로 가장 많으며, 호주(59.6대), 미국(41.0대), 아이슬란드(39.3대), 덴마크(37.7대), 다음으로 한국이 뒤를 이음

- OECD 회원국 중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5.9대, 2014년)이며, 헝가리(8.4대), 영국(9.5대, 2014년), 이스라엘(9.8대)로 인구 100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10대 이하로 낮음

〈표16〉 CT 스캐너 보유 대수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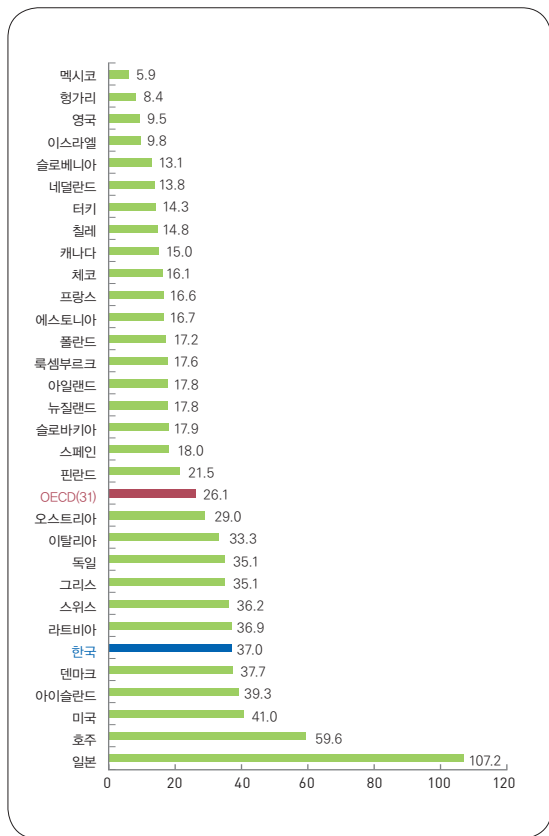
	2010	2015
호주	43.1	59.6
오스트리아	29.9	29.0
벨기에	-	-
캐나다	14.2	15.0
칠레	10.2 (2011)	14.8 (2014)
체코	14.5	16.1
덴마크	27.6	37.7
에스토니아	15.8	16.7
핀란드	21.1	21.5
프랑스	11.8	16.6
독일	32.3	35.1
그리스	34.9	35.1 (2013)
헝가리	7.3	8.4
아이슬란드	37.7	39.3
아일랜드	15.4	17.8
이스라엘	8.9	9.8
이탈리아	32.2	33.3
일본	101.3 (2011)	107.2 (2014)
<b>한국</b>	<b>35.2</b>	<b>37.0</b>
라트비아	29.1	36.9
룩셈부르크	25.6	17.6
멕시코	4.7	5.9 (2014)
네덜란드	12.3	13.8
뉴질랜드	15.6	17.8
노르웨이	-	-
폴란드	14.4	17.2
포르투갈	27.6 (2008)	-
슬로바키아	14.1	17.9
슬로베니아	12.7	13.1
스페인	16.0	18.0
스웨덴	-	-
스위스	32.6	36.2 (2014)
터키	12.4	14.3
영국	7.9	9.5 (2014)
미국	40.9 (2011)	41.0
평균 <sup>1)</sup> (31)	23.6	26.1
최근평균 <sup>2)</sup> (31)		26.1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6] CT 스캐너 보유 대수, 2015년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그리스(2013), 칠레·일본·멕시코·스위스·영국(2014)

## 17.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6.3대로 OECD 평균(16.2대)보다 10.1대 많음
  - 2010년 MRI 보유 대수가 인구 100만 명당 19.9대를 보유하여 5년간 1.3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2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51.7대, 2014년)은 MRI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39.0대)이 그 뒤를 이음
  - 멕시코(2.4대), 헝가리(3.6대)는 인구 100만 명당 MRI 보유 대수가 4대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표17〉 MRI 장비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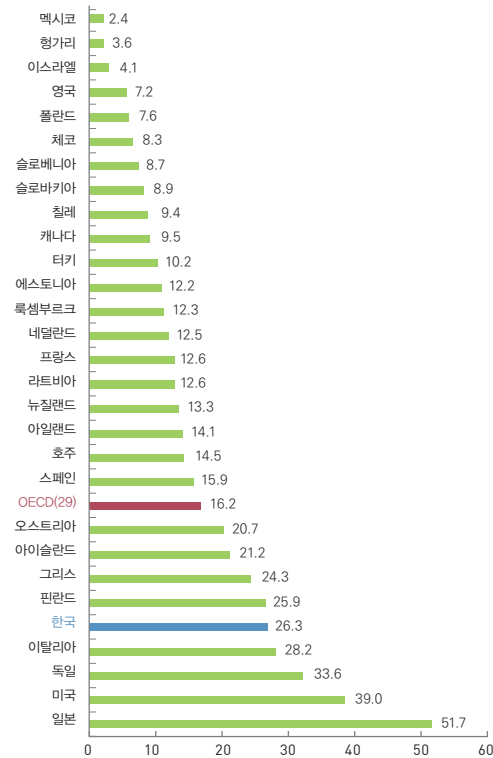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2010	2015
호주	5.7	14.5
오스트리아	18.7	20.7
벨기에	-	-
캐나다	8.3	9.5
칠레	4.1 (2011)	9.4 (2014)
체코	6.3	8.3
덴마크	15.4 (2009)	-
에스토니아	8.3	12.2
핀란드	18.7	25.9
프랑스	7.0	12.6
독일	27.0	33.6
그리스	22.9	24.3 (2013)
헝가리	3.0	3.6
아이슬란드	22.0	21.2
아일랜드	12.3	14.1
이스라엘	2.2	4.1
이탈리아	22.5	28.2
일본	46.9 (2011)	51.7 (2014)
<b>한국</b>	<b>19.9</b>	<b>26.3</b>
라트비아	8.1	12.6
룩셈부르크	13.8	12.3
멕시코	1.9	2.4
네덜란드	12.2	12.5
뉴질랜드	10.6	13.3
노르웨이	-	-
폴란드	4.7	7.6
포르투갈	9.3 (2008)	-
슬로바키아	6.9	8.9
슬로베니아	7.3	8.7
스페인	12.0	15.9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9.3	10.2
영국	6.6	7.2 (2014)
미국	31.5	39.0
평균 <sup>1)</sup> (29)	13.1	16.2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7〉 MRI 장비 보유대수, 2015년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그리스(2013), 칠레-일본-영국(2014)



## 18. 의학계열 졸업자

-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7명보다 적음
  - 2010년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8.2명이었으나, 5년 사이 0.3명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1.4명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에는 아일랜드(23.7명), 덴마크(19.5명, 2014년), 슬로베니아(17.4명), 라트비아(16.2명), 포르투갈(15.9명), 호주(15.8명)가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15명 이상으로 많음
  - 룩셈부르크(0.0명), 이스라엘(5.5명)은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6명 이하로 적음

〈표18〉 의학계열 졸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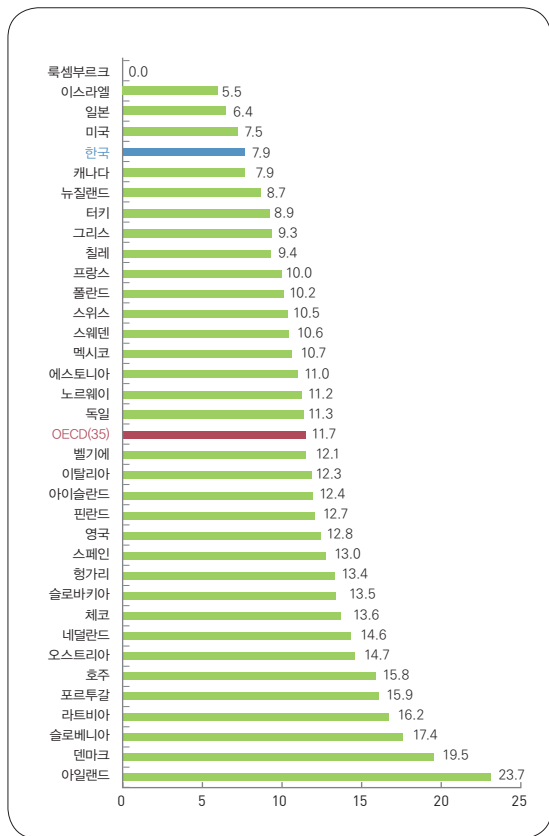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0	2015
호주	12.1	15.8
오스트리아	17.5	14.7 (2014)
벨기에	9.0	12.1
캐나다	7.2	7.9
칠레	7.3	9.4
체코	13.9	13.6
덴마크	21.8	19.5 (2014)
에스토니아	11.2	11.0
핀란드	11.2	12.7 (2014)
프랑스	7.2	10.0 (2013)
독일	12.1	11.3
그리스	9.3	9.3 (2013)
헝가리	10.4	13.4
아이슬란드	13.8	12.4 (2013)
아일랜드	17.2	23.7
이스라엘	4.1	5.5
이탈리아	11.4	12.3
일본	6.0	6.4
<b>한국</b>	<b>8.2</b>	<b>7.9</b>
라트비아	8.5	16.2
룩셈부르크	0.0	0.0
멕시코	11.2	10.7
네덜란드	13.7	14.6
뉴질랜드	7.3	8.7
노르웨이	11.3	11.2
폴란드	8.1	10.2
포르투갈	11.9	15.9
슬로바키아	10.7	13.5 (2014)
슬로베니아	11.2	17.4
스페인	9.2	13.0
스웨덴	10.3	10.6
스위스	10.4	10.5 (2014)
터키	7.0	8.9
영국	13.5	12.8
미국	6.6	7.5
평균 <sup>1)</sup> (35)	10.3	11.7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8] 의학계열 졸업자수, 2015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프랑스·그리스·아이슬란드(2013), 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슬로바키아·스위스(2014)

제IV장

# 보건의료이용

19. 의사의 외래진료
20.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2. 제왕절개 건수
23. 신장이식 건수



## IV. 보건의료이용



### 19. 의사의 외래진료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0회로 OECD 평균(7.0회)보다 2.3배 많음
  - 2010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3.5회로 5년간 2.5회 늘어났고, OECD 평균은 2010년 6.7회에서 2015년 7.0회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12.7회(2014년)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찰 횟수를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7회), 스웨덴(2.9회)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횟수가 3.0회 이하로 낮음

〈표19〉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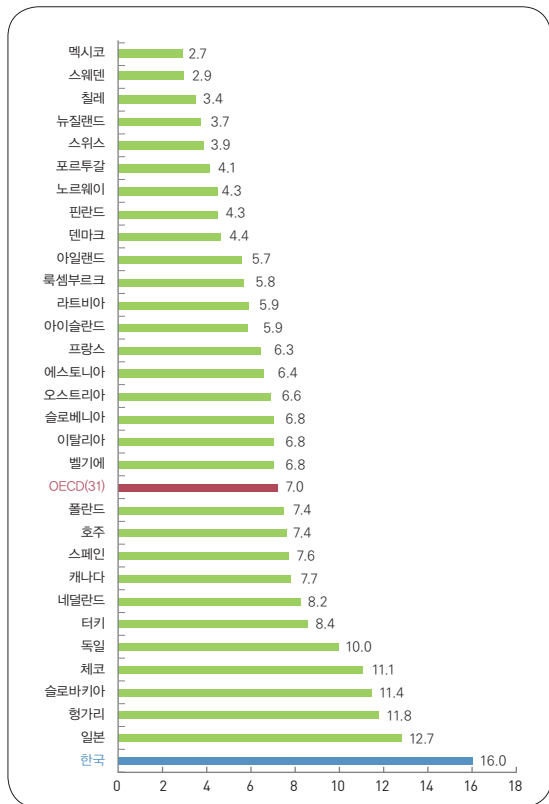
	2010	2015
호주	6.6	7.4
오스트리아	6.9	6.6
벨기에	6.6	6.8
캐나다	7.7	7.7
칠레	3.3	3.4 (2014)
체코	11.0	11.1 (2013)
덴마크	4.6	4.4
에스토니아	6.1	6.4
핀란드	4.3	4.3
프랑스	6.7	6.3 (2014)
독일	9.9	10.0
그리스	-	-
헝가리	11.6	11.8
아이슬란드	6.1	5.9 (2014)
아일랜드	3.8	5.7
이스라엘	6.2 (2009)	-
이탈리아	-	6.8 (2013)
일본	13.1	12.7 (2014)
<b>한국</b>	<b>13.5</b>	<b>16.0</b>
라트비아	5.9	5.9
룩셈부르크	5.9	5.8
멕시코	2.9	2.7
네덜란드	6.6	8.2
뉴질랜드	4.1 (2007)	3.7 (2012)
노르웨이	4.1	4.3
폴란드	6.6	7.4
포르투갈	4.1	4.1 (2012)
슬로바키아	11.6	11.4
슬로베니아	6.4	6.8
스페인	-	7.6 (2014)
스웨덴	2.9	2.9
스위스	4.0 (2007)	3.9 (2012)
터키	7.3	8.4
영국	5.0 (2009)	-
미국	4.0	-
평균 <sup>1)</sup> (29)	6.7	7.0
최근평균 <sup>2)</sup> (31)		7.0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19]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 2015년

(단위: 건)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뉴질랜드·포르투갈·스위스(2012), 체코·이탈리아(2013), 칠레·프랑스·아이슬란드·일본·스페인(2014)

## 20. 치과 의사의 외래진료

- 국민 1인당 치과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연간 횟수는 2.0회로 OECD 회원국 평균(1.2회)보다 많음
  - 2010년 국민 1인당 치과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회로 2015년까지 0.3회 증가하였고, OECD 회원국 평균 횟수는 2010년과 2015년이 동일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2회(2014년)로 가장 높으며, 네덜란드(2.5회)와 한국(2.0회)도 연간 2회 이상의 높은 치과 의사 진료 횟수를 기록함
  - 포르투갈(0.0회, 2012년), 멕시코(0.1회), 터키(0.5회)는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0.5회 이하로 매우 낮음

〈표20〉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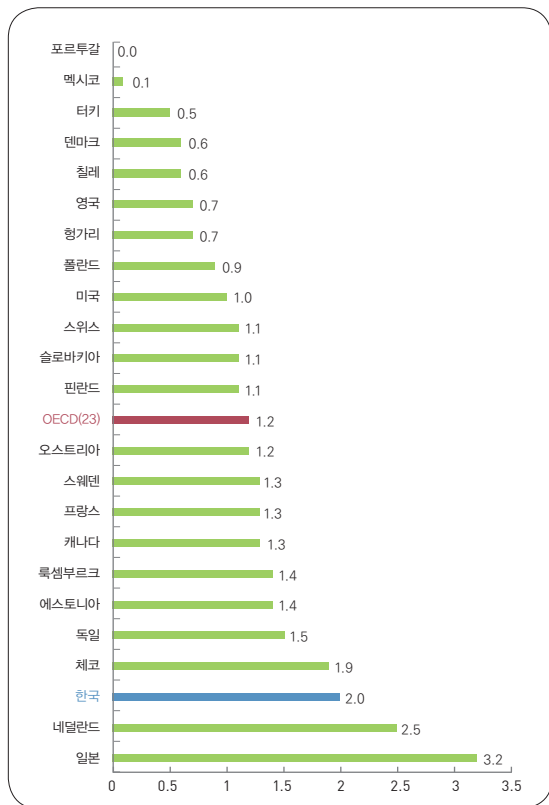
(단위: 건)

	2010	2015
호주	1.5	-
오스트리아	1.2	1.2
벨기에	2.5 (2009)	-
캐나다	1.3	1.3
칠레	0.7	0.6 (2014)
체코	1.9	1.9 (2013)
덴마크	0.9	0.6
에스토니아	1.3	1.4
핀란드	1.2	1.1
프랑스	1.7	1.3 (2014)
독일	1.4	1.5
그리스	-	-
헝가리	0.7	0.7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0.7	-
이스라엘	2.3 (2009)	-
이탈리아	-	-
일본	3.1	3.2 (2014)
<b>한국</b>	<b>1.7</b>	<b>2.0</b>
라트비아	-	-
룩셈부르크	1.5	1.4
멕시코	0.2	0.1
네덜란드	2.3	2.5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0.8	0.9
포르투갈	0.1	0.0 (2012)
슬로바키아	1.2	1.1
슬로베니아	-	-
스페인	1.6 (2009)	-
스웨덴	1.4	1.3
스위스	1.2 (2009)	1.1 (2012)
터키	0.3	0.5
영국	0.8	0.7
미국	0.9	1.0 (2014)
평균 <sup>1)</sup> (23)	1.2	1.2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0]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2015년

(단위: 건)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포르투갈·스위스(2012), 체코(2013), 칠레·프랑스·일본·미국(2014)

##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하기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6.1일로 OECD 회원국 평균(8.2일)보다 2.0배 길어짐
  - 2010년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5.8일로 2015년까지 0.3일이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은 2010년과 2015년 사이 0.4일 줄어듦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일본(29.1일) 다음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프랑스가 10.1일(2014년)로 평균병원재원일수가 10일 이상인 국가임
  - 터키(3.9일)와 멕시코(4.2일)는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짧은 재원일수를 기록함

〈표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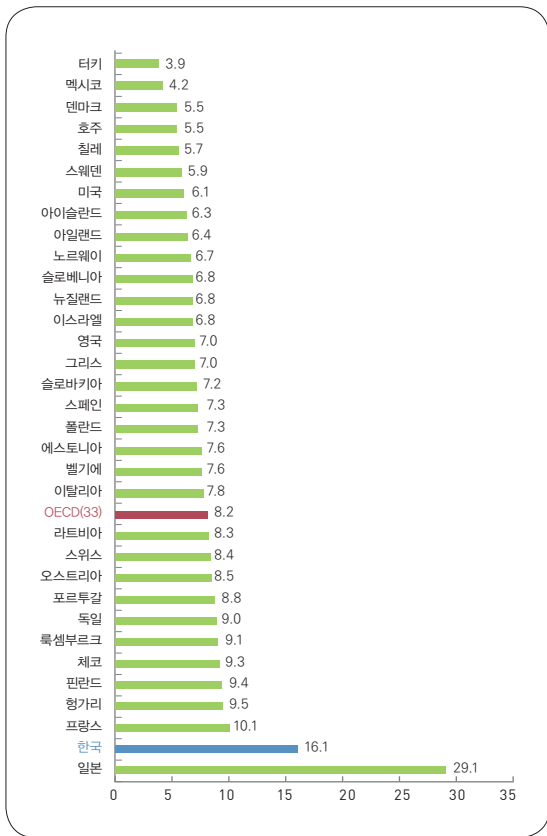
(단위: 일)

	2010	2015
호주	5.8	5.5 (2014)
오스트리아	7.9	8.5
벨기에	8.1	7.6 (2014)
캐나다	-	-
칠레	5.9	5.7 (2014)
체코	9.9	9.3
덴마크	5.9	5.5
에스토니아	7.6	7.6
핀란드	11.8	9.4
프랑스	10.2	10.1 (2014)
독일	9.5	9.0
그리스	6.6	7.0 (2012)
헝가리	9.5	9.5
아이슬란드	5.6	6.3
아일랜드	6.6	6.4
이스라엘	6.8	6.8
이탈리아	7.6	7.8
일본	32.5	29.1
<b>한국</b>	<b>15.8</b>	<b>16.1</b>
라트비아	8.5	8.3
룩셈부르크	9.1	9.1
멕시코	3.9	4.2
네덜란드	-	-
뉴질랜드	9.3	6.8 (2014)
노르웨이	6.8	6.7
폴란드	7.6	7.3
포르투갈	8.7	8.8
슬로바키아	8.2	7.2
슬로베니아	6.7	6.8
스페인	7.9	7.3
스웨덴	6.0	5.9
스위스	9.5	8.4
터키	4.1	3.9
영국	7.7	7.0
미국	6.2	6.1 (2014)
평균 <sup>1)</sup> (33)	8.6	8.2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015년

(단위: 일)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그리스(2012), 호주·벨기에·칠레·프랑스·뉴질랜드·미국(2014)

## 22. 제왕절개 건수

-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380.3건(2014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9.6건보다 1.5배 많음
  - 2010년과 2015년 사이 OECD 평균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13.4건 늘어났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4년 사이 28.1건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 터키는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53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380.3건, 2014년)이 그 뒤를 이음
  - 핀란드(154.7건)는 OECD 회원국 중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낮았으며, 네덜란드(158.8건, 2012년)도 160건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표22〉 제왕절개 건수

(단위: 건/출생아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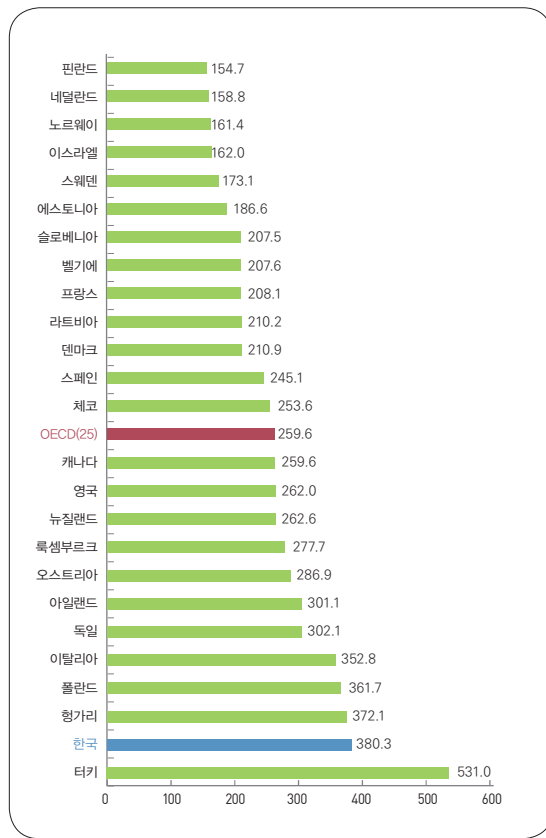
	2010	2015
호주	-	-
오스트리아	285.5	286.9
벨기에	197.2	207.6 (2014)
캐나다	260.9	259.6 (2014)
칠레	-	-
체코	224.9	253.6
덴마크	214.3	210.9
에스토니아	203.3	186.6
핀란드	161.4	154.7
프랑스	210.2	208.1 (2013)
독일	305.0	302.1
그리스	-	-
헝가리	324.7	372.1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260.4	301.1
이스라엘	175.6	162.0
이탈리아	384.6	352.8
일본	-	-
<b>한국</b>	<b>352.2</b>	<b>380.3 (2014)</b>
라트비아	229.5	210.2
룩셈부르크	257.7	277.7
멕시코	-	-
네덜란드	155.9	158.8 (2012)
뉴질랜드	237.8	262.6 (2014)
노르웨이	-	161.4
폴란드	260.4	361.7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189.5	207.5
스페인	249.6	245.1
스웨덴	166.3	173.1
스위스	325.2 (2008)	-
터키	465.8	531.0
영국	238.6	262.0
미국	-	-
평균 <sup>1)</sup> (24)	250.3	263.7
최근평균 <sup>2)</sup> (25)	-	259.6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2] 제왕절개 건수, 2015년

(단위: 건/출생아1,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네덜란드(2012), 프랑스(2013), 벨기에-캐나다-뉴질랜드(2014)



## 23. 신장이식 건수

■ 인구 10만 명당 신장이식 건수는 3.7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3.8건)과 비슷함

- 2010년 신장이식 건수는 2.6건으로 5년 사이 1.4배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신장이식 건수는 같은 기간 1.1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신장이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인구 10만 명당 6.3건을 기록하였고, 네덜란드(6.1건, 2012년), 덴마크 및 미국(5.6건), 프랑스(5.1건), 오스트리아(5.0건)도 인구 10만 명당 5건 이상의 높은 신장이식 건수를 기록

- 룩셈부르크(0.0건), 일본(1.3건)은 인구 10만 명당 신장이식 건수가 2건 미만으로 낮음

〈표23〉 신장이식 건수

(단위: 건/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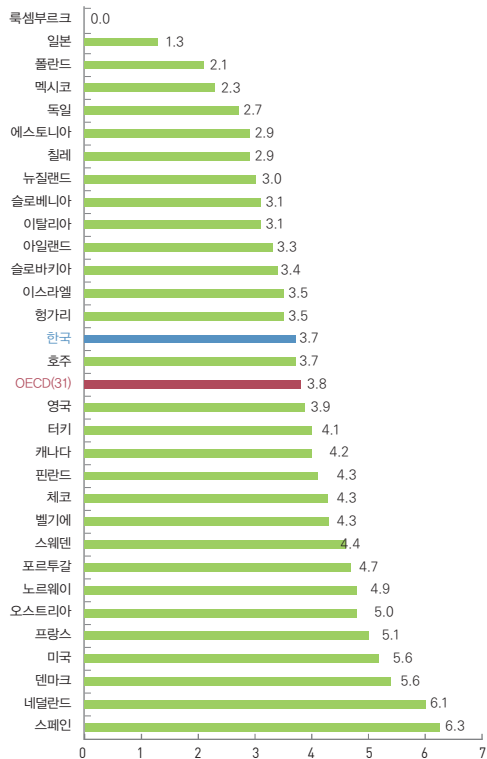
	2010	2015
호주	3.8	3.7 (2014)
오스트리아	4.9	5.0
벨기에	4.2	4.3 (2014)
캐나다	3.8	4.2
칠레	2.3	2.9 (2014)
체코	3.5	4.3
덴마크	4.6	5.6
에스토니아	2.6	2.9
핀란드	2.9	4.3
프랑스	4.3	5.1
독일	3.5	2.7
그리스	1.1	-
헝가리	3.0	3.5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2.7	3.3
이스라엘	1.9	3.5
이탈리아	2.9	3.1
일본	1.2	1.3
<b>한국</b>	<b>2.6</b>	<b>3.7</b>
라트비아	-	-
룩셈부르크	0.0	0.0
멕시코	2.1	2.3 (2013)
네덜란드	5.2	6.1 (2012)
뉴질랜드	2.5	3.0 (2014)
노르웨이	-	4.9
폴란드	1.8	2.1
포르투갈	5.3	4.7
슬로바키아	3.1	3.4
슬로베니아	2.3	3.1
스페인	4.8	6.3
스웨덴	4.4	4.4
스위스	3.8 (2008)	-
터키	3.4	4.1
영국	3.6	3.9
미국	5.5	5.6
평균 <sup>1)</sup> (30)	3.3	3.7
최근평균 <sup>2)</sup> (31)		3.8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3] 신장이식 건수, 2015년

(단위: 건/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네덜란드(2012), 멕시코(2013), 호주·벨기에·칠레·뉴질랜드(2014)

제V장

## 보건의료비용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2016년 잠정치)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2016년 잠정치)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2015년)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중(2015년)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2016년 잠정치)

## V. 보건의료비용



###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2016년 잠정치)\*

\*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에 대한 지출 비용으로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됨

-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9.0%)보다 낮음
  - 2010년에 비해 2016년(잠정치)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1.2%p 상승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0.2%p)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함
  -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17.2%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터키(4.3%), 라트비아(5.7%), 멕시코(5.8%), 룩셈부르크(6.3%), 폴란드(6.4%), 에스토니아(6.7%), 슬로바키아(6.9%)는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7% 미만인 국가임

〈표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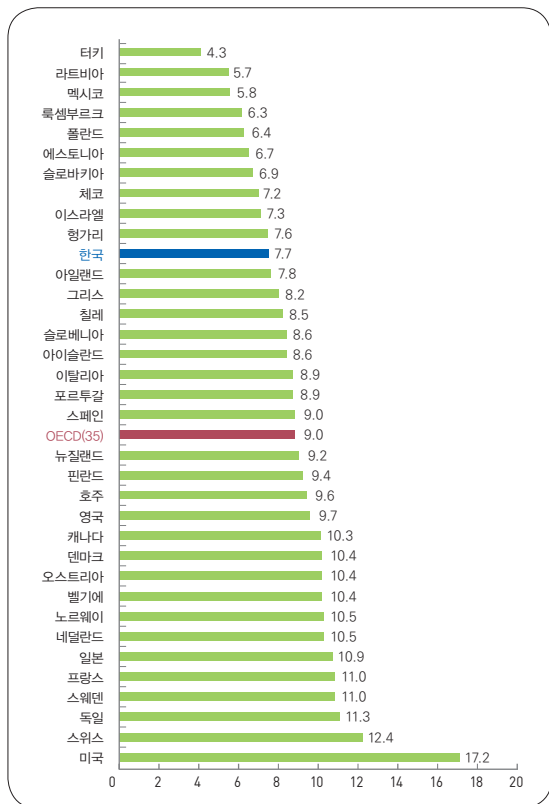
(단위: %)

	2010	2016(잠정치)
호주	8.5	9.6
오스트리아	10.1	10.4
벨기에	9.9	10.4
캐나다	10.6	10.3
칠레	6.7	8.5
체코	6.9	7.2
덴마크	10.4	10.4
에스토니아	6.3	6.7
핀란드	8.9	9.4
프랑스	10.7	11.0
독일	11.0	11.3
그리스	9.6	8.2
헝가리	7.6	7.6
아이슬란드	8.8	8.6
아일랜드	10.5	7.8
이스라엘	7.0	7.3
이탈리아	9.0	8.9
일본	9.2	10.9
<b>한국</b>	<b>6.5</b>	<b>7.7</b>
라트비아	6.1	5.7
룩셈부르크	7.0	6.3
멕시코	6.0	5.8
네덜란드	10.4	10.5
뉴질랜드	9.7	9.2
노르웨이	8.9	10.5
폴란드	6.4	6.4
포르투갈	9.8	8.9
슬로바키아	7.8	6.9
슬로베니아	8.6	8.6
스페인	9.0	9.0
스웨덴	8.5	11.0
스위스	10.7	12.4
터키	5.1	4.3
영국	8.5	9.7
미국	16.4	17.2
평균 <sup>1)</sup> (35)	8.8	9.0

1) 2010년과 2016년 잠정치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6년(잠정치)

(단위: %)



주) OECD: 회원국의 2016년 잠정치 평균임

##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2016년 잠정치)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OECD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추이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잠정치)
한국	57.3	57.9	57.9	57.3	56.3	56.2	56.2	56.4	56.4
OECD 평균	72.1	73.1	72.8	72.9	72.5	72.6	72.5	72.5	72.5

-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2%), 독일(84.6%), 덴마크·일본(84.1%), 스웨덴(83.9%), 체코(83.4%), 룩셈부르크(83.0%), 아이슬란드(82.1%), 네덜란드(80.8%), 뉴질랜드(80.2%)로 80% 이상을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미국(49.1%)은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낮은 국가임

〈표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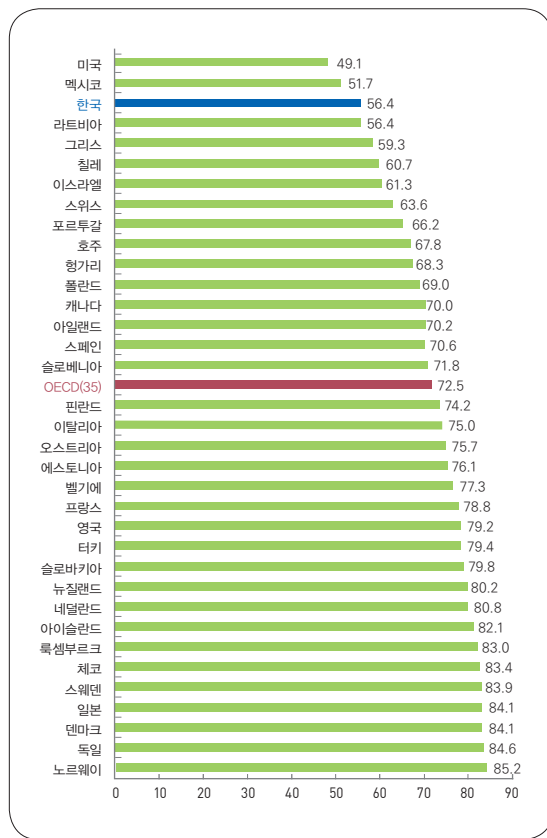
(단위: %)

	2010	2016(잠정치)
호주	68.6	67.8
오스트리아	76.1	75.7
벨기에	77.4	77.3
캐나다	69.8	70.0
칠레	45.5	60.7
체코	83.3	83.4
덴마크	84.6	84.1
에스토니아	76.4	76.1
핀란드	74.3	74.2
프랑스	78.4	78.8
독일	83.5	84.6
그리스	69.1	59.3
헝가리	67.1	68.3
아이슬란드	80.4	82.1
아일랜드	76.2	70.2
이스라엘	62.9	61.3
이탈리아	78.5	75.0
일본	81.9	84.1
<b>한국</b>	<b>57.9</b>	<b>56.4</b>
라트비아	60.2	56.4
룩셈부르크	84.9	83.0
멕시코	48.6	51.7
네덜란드	82.6	80.8
뉴질랜드	80.6	80.2
노르웨이	84.7	85.2
폴란드	71.7	69.0
포르투갈	69.8	66.2
슬로바키아	71.9	79.8
슬로베니아	73.3	71.8
스페인	74.8	70.6
스웨덴	81.9	83.9
스위스	62.5	63.6
터키	78.0	79.4
영국	83.1	79.2
미국	48.4	49.1
평균 <sup>1)</sup> (35)	72.8	72.5

1) 2010년과 2016년 잠정치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2016년(잠정치)

(단위: %)



주) OECD: 회원국의 2016년 잠정치 평균임

##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2015년)

-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인 20.3%에 1.8배가량 높음
  - 2010년 경상의료비 중 가계지출비중은 37.3%로 5년 사이 0.5%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3%p 상승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41.6%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부담 비중을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프랑스(6.8%)만이 경상의료비 중 가계 직접부담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음

〈표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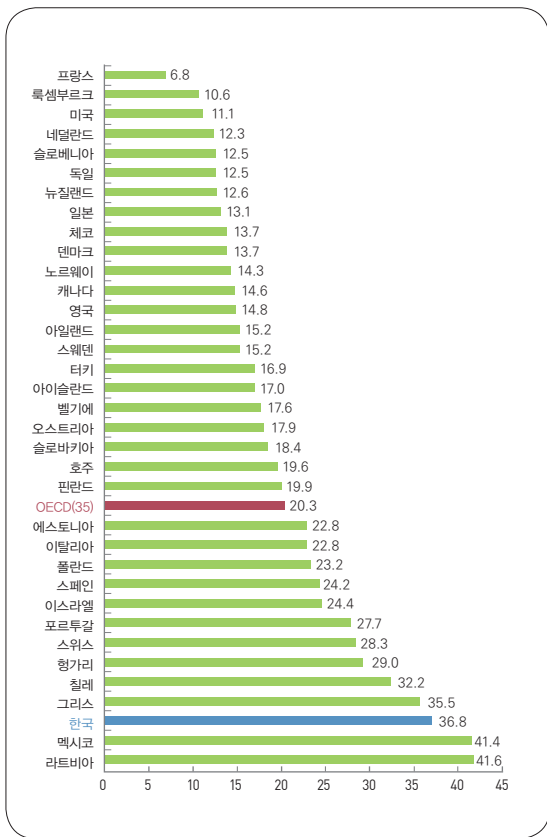
(단위: %)

	2010	2015
호주	19.7	19.6 (2014)
오스트리아	17.7	17.9
벨기에	18.3	17.6
캐나다	15.5	14.6
칠레	35.0	32.2
체코	15.3	13.7
덴마크	13.7	13.7
에스토니아	21.9	22.8
핀란드	20.0	19.9
프랑스	7.5	6.8
독일	13.9	12.5
그리스	28.1	35.5
헝가리	27.4	29.0
아이슬란드	18.2	17.0
아일랜드	13.8	15.2
이스라엘	23.7	24.4
이탈리아	20.5	22.8
일본	14.6	13.1
<b>한국</b>	<b>37.3</b>	<b>36.8</b>
라트비아	37.2	41.6
룩셈부르크	10.2	10.6
멕시코	45.7	41.4
네덜란드	9.8	12.3
뉴질랜드	12.6	12.6 (2013)
노르웨이	15.0	14.3
폴란드	23.7	23.2
포르투갈	24.6	27.7
슬로바키아	22.8	18.4
슬로베니아	12.7	12.5
스페인	20.7	24.2
스웨덴	16.9	15.2
스위스	28.0	28.3
터키	16.9	16.9
영국	9.7	14.8
미국	12.2	11.1
<b>평균<sup>1)</sup>(35)</b>	<b>20.0</b>	<b>20.3</b>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015년

(단위: %)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뉴질랜드(2013), 호주(2014)

##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2015년)

-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은 21.4%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 16.2%보다 높음
  -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은 2010년 26.2%로, 2015년까지 4.8%p가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7%p 하락함
- OECD 회원국 중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29.2%를 기록하였으며, 멕시코(27.2%)도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덴마크(6.8%), 노르웨이(7.7%), 네덜란드(7.9%)는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이 8% 이하로 낮음

〈표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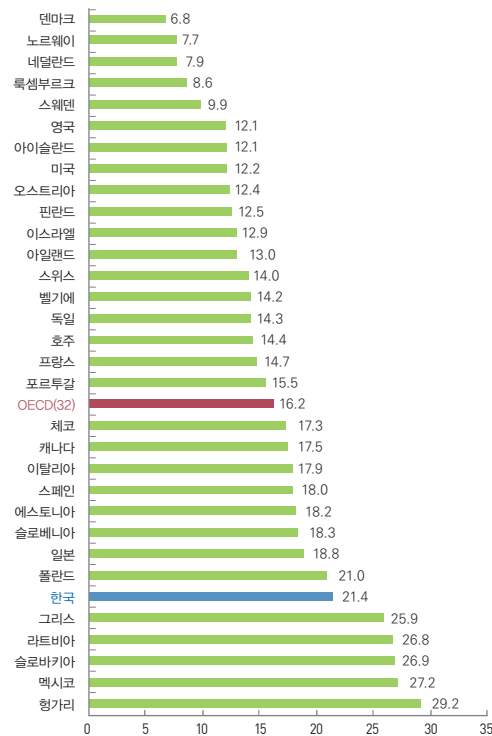
	2010	2015
호주	15.6	14.4 (2014)
오스트리아	12.4	12.4
벨기에	15.7	14.2
캐나다	18.5	17.5 (2014)
칠레	-	-
체코	20.4	17.3
덴마크	7.7	6.8
에스토니아	20.5	18.2
핀란드	13.5	12.5
프랑스	16.4	14.7
독일	15.0	14.3
그리스	28.6	25.9
헝가리	33.3	29.2
아이슬란드	15.8	12.1
아일랜드	14.8	13.0
이스라엘	13.6	12.9 (2013)
이탈리아	18.8	17.9
일본	20.5	18.8 (2014)
<b>한국</b>	<b>26.2</b>	<b>21.4</b>
라트비아	25.8	26.8
룩셈부르크	9.7	8.6
멕시코	31.5	27.2
네덜란드	9.8	7.9
뉴질랜드	10.4 (2007)	-
노르웨이	7.7	7.7
폴란드	24.3	21.0
포르투갈	19.3	15.5
슬로바키아	29.2	26.9
슬로베니아	19.8	18.3
스페인	18.2	18.0
스웨덴	13.3	9.9
스위스	14.5	14.0
터키	-	-
영국	-	12.1
미국	11.9	12.2
평균 <sup>1)</sup> (31)	18.1	16.4
최근평균 <sup>2)</sup> (32)		16.2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 2015년

(단위: %)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이스라엘(2013), 호주-캐나다-일본(2014)



##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2016년 잠정치)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를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US\$ PPP(구매력평가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보면,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2,729 US\$ PPP로 OECD 회원국 평균 3,997 US\$ PPP보다 1,268 US\$ PPP 낮음

- 2010년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1,976 US\$ PPP로 6년 사이 1.4배 증가했고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1.2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9,892 US\$ PPP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많음

- 멕시코(1,080 US\$ PPP), 터키(1,088 US\$ PPP), 라트비아(1,466 US\$ PPP)는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1,500 US\$ PPP 이하로 낮은 수준임

〈표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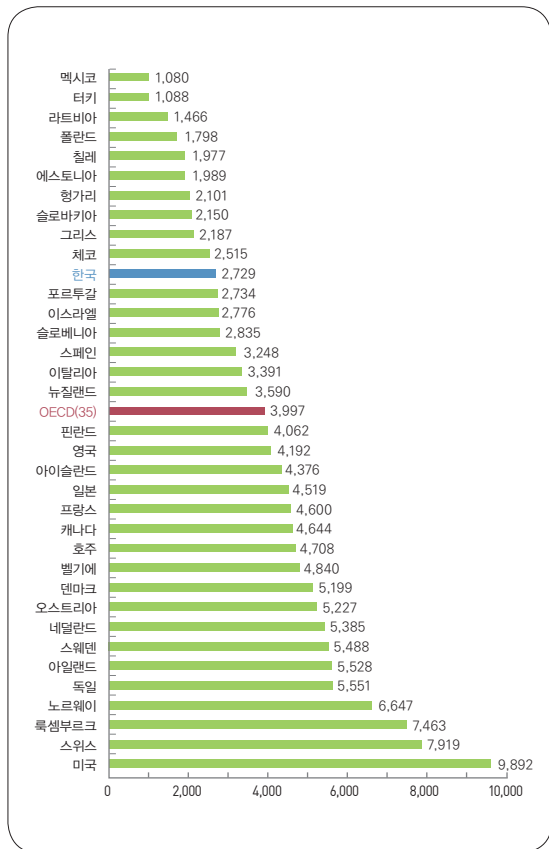
(단위: US\$ PPP)

	2010	2016(잠정치)
호주	3,607	4,708
오스트리아	4,238	5,227
벨기에	3,980	4,840
캐나다	4,228	4,644
칠레	1,220	1,977
체코	1,921	2,515
덴마크	4,470	5,199
에스토니아	1,370	1,989
핀란드	3,442	4,062
프랑스	3,872	4,600
독일	4,413	5,551
그리스	2,696	2,187
헝가리	1,623	2,101
아이슬란드	3,383	4,376
아일랜드	4,556	5,528
이스라엘	2,034	2,776
이탈리아	3,141	3,391
일본	3,205	4,519
<b>한국</b>	<b>1,976</b>	<b>2,729</b>
라트비아	1,082	1,466
룩셈부르크	6,387	7,463
멕시코	911	1,080
네덜란드	4,638	5,385
뉴질랜드	3,020	3,590
노르웨이	5,168	6,647
폴란드	1,354	1,798
포르투갈	2,687	2,734
슬로바키아	1,951	2,150
슬로베니아	2,380	2,835
스페인	2,896	3,248
스웨덴	3,536	5,488
스위스	5,686	7,919
터키	873	1,088
영국	3,041	4,192
미국	7,932	9,892
평균 <sup>1)</sup> (35)	3,226	3,997

1) 2010년과 2016년 잠정치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2016년(잠정치)

(단위: US\$ PPP)



주) OECD: 회원국의 2016년 잠정치 평균임

## 제VI장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29. 의약품 소비량

30. 의약품 총 판매액



## VI.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 29. 의약품 소비량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별로 볼 때 2014년 의약품 소비량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를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최고치인 422.9DDD (Defined Daily Dose, 일일상용량)를 기록함
  -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전신성 호르몬제,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소비량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음
  -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31.7DDD로 OECD 평균(21.2DDD)에 비해 높음

〈표 29〉 의약품 소비량,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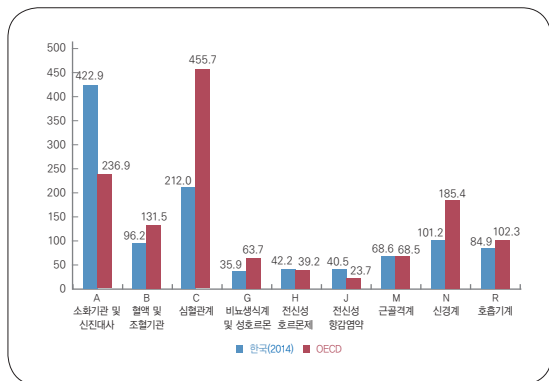
(단위: DDD<sup>1)</sup>/1,000인/1일)

ATC 항목	항목명	한국 (2014)	OECD 회원국(한국 포함) <sup>2)</sup>		
			(최저 ~ 최고)	평균값	중앙값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422.9	117.6 ~ 452.2	236.9	225.9
A02A	제산제	4.5	0.0 ~ 8.2	2.0	1.0
A02B	위궤양 치료제	45.2	42.5 ~ 125.2	75.8	67.4
A10	당뇨병 치료제	60.8	39.5 ~ 88.2	66.9	65.7
B	혈액 및 조혈기관	96.2	48.3 ~ 279.5	131.5	121.7
C	심혈관계	212.0	158.9 ~ 718.6	455.7	420.4
C01A	강심배당체	1.3	0.5 ~ 4.4	2.5	2.5
C01B	항부정맥약	1.0	0.8 ~ 10.6	4.2	3.2
C02	혈압강하제	2.3	1.1 ~ 33.7	9.0	5.9
C03	이뇨제	17.9	7.0 ~ 94.0	42.3	43.6
C07	베타 차단제	13.4	13.4 ~ 88.9	44.2	40.2
C08	칼슘 차단제	54.0	24.7 ~ 89.1	56.9	54.7
C09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45.4	45.4 ~ 359.0	175.1	173.4
C10	지질관화 약물	52.1	18.3 ~ 152.0	100.2	105.0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5.9	19.8 ~ 134.0	63.7	50.2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9.6	3.8 ~ 84.5	36.4	28.0
H	전신성 호르몬제	42.2	16.9 ~ 85.1	39.2	39.5
J	전신성 항감염약	40.5	12.2 ~ 42.6	23.7	22.2
J01	전신성 항균물질	31.7	9.7 ~ 41.1	21.2	21.0
M	근골격계	68.6	27.2 ~ 143.5	68.5	67.6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46.1	10.1 ~ 79.0	43.2	43.6
N	신경계	101.2	79.3 ~ 379.5	185.4	167.7
N02	진통제	13.6	5.2 ~ 90.0	31.0	22.8
N05B	불안제거약	13.7	2.1 ~ 96.8	19.9	14.4
N05C	취면제 및 진정제	10.1	0.0 ~ 69.3	20.5	17.8
N06A	항우울제	18.0	18.0 ~ 129.6	62.3	55.8
R	호흡기계	84.9	33.8 ~ 206.8	102.3	84.9
R03	기도폐색질환약	14.1	14.1 ~ 94.7	43.9	43.2

1) DDD(Defined Daily Dose)란 약품의 일일상용량을 의미함

2) 2015년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2017년 11월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그림 29] 의약품 소비량, 2015년

(단위: DDD<sup>1)</sup>/1,000인/1일)

주) 1. DDD(Defined Daily Dose)란 약품의 일일상용량을 의미함

2. 2015년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2017년 11월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 30. 의약품 판매액

■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4년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 등의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음(1인당 US\$, PPP 기준)
- 비노생식계 및 성호르몬, 전신성 호르몬제, 신경계, 호흡기계 등의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음

〈표 30-1〉 의약품 판매액(US\$), 2015<sup>1)</sup>

(단위: 1인당 US\$)

ATC 항목	항목명	한국 (2014)	OECD 회원국(한국 포함) <sup>2)</sup>		
			(최저 ~ 최고)	평균값	중앙값
	총판매	445.7	92.9 ~ 780.0	417.3	439.4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66.1	3.1 ~ 112.3	49.4	50.6
A02A	제산제	1.5	0.0 ~ 2.0	0.5	0.5
A02B	위궤양 치료제	15.5	0.3 ~ 25.0	9.8	8.0
A10	당뇨병 치료제	13.0	0.9 ~ 37.2	20.3	18.7
B	혈액 및 조혈기관	37.1	1.9 ~ 51.5	28.2	30.0
C	심혈관계	55.7	1.9 ~ 98.0	51.7	53.7
C01A	강심배당체	0.0	0.0 ~ 0.6	0.2	0.1
C01B	항부정맥약	0.2	0.0 ~ 1.6	0.8	0.8
C02	혈압강하제	0.6	0.2 ~ 6.6	2.3	2.2
C03	이뇨제	0.4	0.1 ~ 7.2	2.8	2.6
C07	베타 차단제	2.4	0.1 ~ 11.0	5.0	5.1
C08	칼슘 차단제	7.2	0.1 ~ 11.9	3.8	3.5
C09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20.5	0.7 ~ 33.8	15.9	15.0
C10	지질원화 약물	18.3	0.3 ~ 35.7	13.3	9.7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3.3	0.6 ~ 43.9	16.5	14.7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3.7	0.4 ~ 17.6	7.2	6.5
H	전신성 호르몬제	4.8	0.5 ~ 17.8	8.5	10.0
J	전신성 항감염약	53.5	4.2 ~ 79.2	35.2	29.5
J01	전신성 항균물질	25.0	1.1 ~ 25.0	11.7	10.3
M	근골격계	25.5	0.7 ~ 50.2	16.9	16.8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1.5	0.2 ~ 13.0	7.4	7.8
N	신경계	37.8	2.1 ~ 130.7	65.2	62.9
N02	진통제	6.9	0.3 ~ 29.7	13.5	11.3
N05B	불안제거약	1.2	0.1 ~ 7.6	2.5	1.9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0.8	0.0 ~ 10.6	2.6	1.6
N06A	항우울제	3.5	0.2 ~ 31.2	9.7	8.7
R	호흡기계	19.3	1.2 ~ 63.4	30.0	30.7
R03	기도폐색질환약	5.8	0.9 ~ 42.3	19.5	21.6
	기타 <sup>3)</sup>	132.7	0.0 ~ 225.0	111.6	130.9

1) 2015년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2017년 11월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2)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표 30-2〉 의약품 판매액(US\$, PPP), 2015

(단위: 1인당 US\$, PPP<sup>3)</sup>)

ATC 항목	항목명	한국 (2014)	OECD 회원국(한국 포함) <sup>2)</sup>		
			(최저 ~ 최고)	평균값	중앙값
	총판매	532.2	151.3 ~ 835.0	444.8	440.5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78.9	5.9 ~ 92.5	54.2	50.1
A02A	제산제	1.8	0.0 ~ 1.8	0.6	0.6
A02B	위궤양 치료제	18.5	0.6 ~ 28.2	10.8	8.6
A10	당뇨병 치료제	15.5	1.7 ~ 44.1	23.1	21.8
B	혈액 및 조혈기관	44.2	3.6 ~ 69.8	31.3	31.9
C	심혈관계	66.6	3.6 ~ 137.7	57.7	62.7
C01A	강심배당체	0.0	0.0 ~ 0.5	0.2	0.1
C01B	항부정맥약	0.3	0.1 ~ 2.1	0.9	0.8
C02	혈압강하제	0.7	0.3 ~ 6.8	2.6	2.2
C03	이뇨제	0.5	0.2 ~ 7.0	3.0	3.3
C07	베타 차단제	2.9	0.1 ~ 10.7	5.7	6.1
C08	칼슘 차단제	8.6	0.2 ~ 12.4	4.2	3.6
C09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24.5	1.3 ~ 51.5	18.8	17.5
C10	지질원화 약물	21.8	0.5 ~ 47.3	15.1	13.3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5.9	1.2 ~ 34.6	17.9	19.3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4.4	0.7 ~ 18.4	8.0	7.1
H	전신성 호르몬제	5.7	0.9 ~ 17.3	9.0	9.3
J	전신성 항감염약	63.9	8.2 ~ 95.9	38.4	35.0
J01	전신성 항균물질	29.9	2.2 ~ 35.5	13.6	11.1
M	근골격계	30.4	1.4 ~ 37.4	18.8	17.4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3.7	0.3 ~ 16.1	8.6	9.0
N	신경계	45.1	4.0 ~ 124.1	68.1	70.4
N02	진통제	8.3	0.7 ~ 26.7	14.2	13.3
N05B	불안제거약	1.4	0.2 ~ 9.3	2.9	2.3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1.0	0.0 ~ 9.6	2.8	2.0
N06A	항우울제	4.2	0.3 ~ 32.7	10.6	10.0
R	호흡기계	23.1	2.3 ~ 57.4	32.3	32.6
R03	기도폐색질환약	6.9	1.8 ~ 35.2	20.9	21.7
	기타 <sup>3)</sup>	158.4	0.0 ~ 227.5	113.8	1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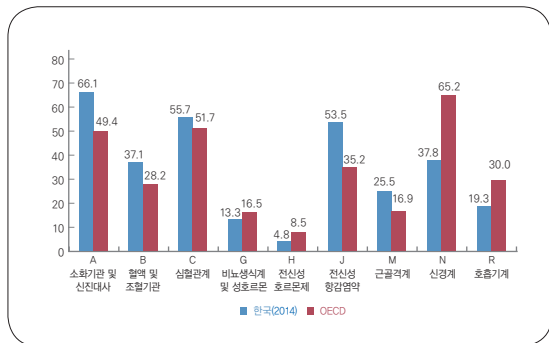
1)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2015년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2017년 11월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3)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30-1] 의약품 판매액(US\$),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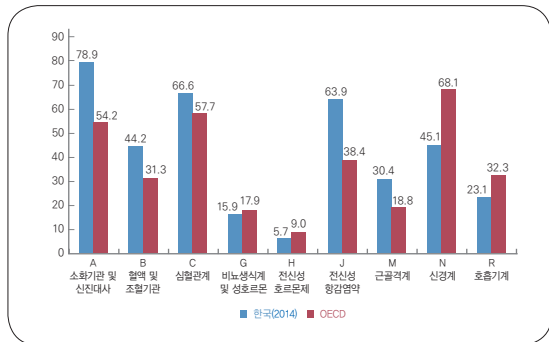
(단위: 1인당 US\$)



주) 2015년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2017년 11월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그림 30-2] 의약품 판매액(US\$ PPP), 2015년

(단위: 1인당 US\$, PPP<sup>1)</sup>)



주) 1.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2015년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2017년 11월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제1장

# 장기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 VII. 장기요양



###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 병상과 시설침상은 58.6개로 OECD 평균(48.7개)보다 다소 높음

-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43.2개로 5년 사이 약 1.4배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3병상 늘어남
- 전체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 중 병원병상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86.3개를 기록함

- 터키(8.0개), 폴란드(12.3개), 라트비아(17.3개), 이탈리아(19.2개)는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 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20개 미만으로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음

〈표31〉 장기요양병원병상과 장기요양시설침상 수

(단위: 병상수(침상수)/65세 이상 인구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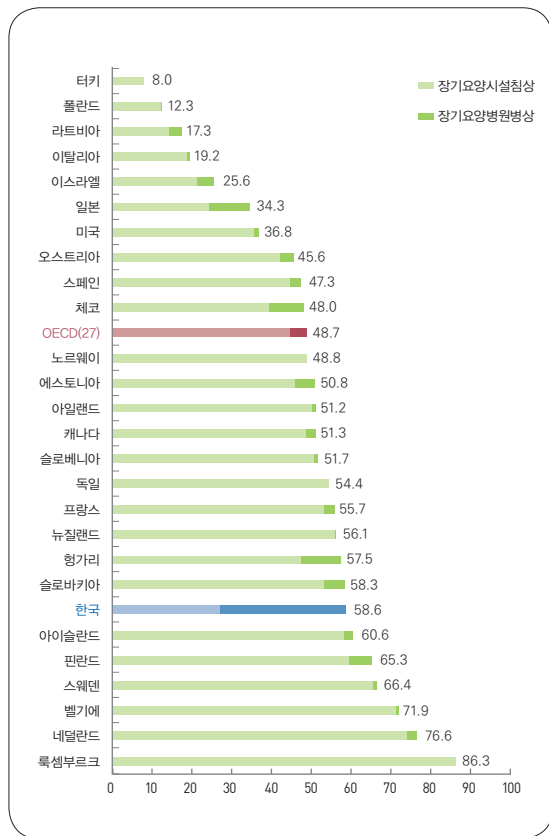
	2010		2015	
	전체	병원병상	전체	병원병상
호주	-	-	57.6	-
오스트리아	41.4	2.3	39.1 (2009)	45.6
벨기에	72.7	1.0	71.7	71.9
캐나다	58.1	4.0	54.1	51.3
칠레	-	0.1	-	0.1
체코	53.6	10.2	43.4	48.0
덴마크	52.1	0.2	51.9	-
에스토니아	43.1	6.7	36.4	50.8
핀란드	77.9	13.8	64.1	65.3
프랑스	57.6	3.2	54.4	55.7
독일	50.5	0.0	50.5 (2009)	54.4
그리스	-	-	-	2.9
헝가리	59.9	10.3	49.6	57.5
아이슬란드	70.4	3.7	66.7	60.6
아일랜드	52.8	1.7	51.1	51.2
이스라엘	30.2	5.6	24.6	25.6
이탈리아	18.5	0.9	17.6	19.2
일본	35.9	11.8	24.1	34.3
<b>한국</b>	<b>43.2</b>	<b>21.0</b>	<b>22.2</b>	<b>58.6</b>
라트비아	19.5	3.5	16.0	17.3
룩셈부르크	55.4	0.0	55.4	86.3
멕시코	-	-	-	-
네덜란드	67.8	0.0	67.8	76.6
뉴질랜드	-	-	61.9	56.1
노르웨이	57.2	0.0	57.2	48.8
폴란드	12.8	0.4	12.4	12.3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56.2	7.2	49.0	58.3
슬로베니아	-	0.4	-	51.7
스페인	35.0	3.5	31.5	47.3
스웨덴	80.0	1.2	78.8	66.4
스위스	-	-	70.1	-
터키	7.5	0.0	7.5 (2011)	8.0
영국	-	-	51.6	-
미국	42.9	1.8	41.1	36.8
평균 <sup>1)</sup> (25)	48.0	4.6	43.5	48.3
최근평균 <sup>2)</sup> (27)	-	-	-	48.7

1) 2010년과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31] 장기요양병원병상과 장기요양시설침상 수, 2015년

(단위: 병상수(침상수)/65세 이상 인구1,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시설침상·2012), 네덜란드(병원병상·2013), 한국(병원병상·2014), 미국(시설침상·병원병상·2014)



## OECD Health Statistics 2017

본 책자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서 주요 지표만을 발췌하여 구성·편집한 자료이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 (044)202-22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 (044)287-8136

- 만든 곳

경성문화사 ☎(02)786-2999